

2008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구본현(동덕여대)

1. 머리말
2. 교양서의 증가와 연구서의 감소
3. 연구 영역의 확장과 연구 방법의 다각화
 - 3.1. 새 자료의 발굴과 연구 대상의 확대
 - 3.2. 문학공간과 문화지리학에 대한 관심
 - 3.3. 연구 방법의 다각화
4. 맺음말

1. 머리말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일은 훌륭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한문학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연구 동향 정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한문학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연구의 ‘동향’이 과연 존재하느냐는 문제이다. 한문학 연구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문학이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계획되고 진행되는 실용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학문의 성과를 계량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은 한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문학 분야의 연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¹⁾

물론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기획주제 등은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동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술대회 대부분이 장

1) 예컨대 沈煥之에게 준 正祖의 御札이 일시적으로 世間の 주목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기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기보다는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주제가 비슷하거나 중복된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한문학 관련 학회들의 성격이 서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²⁾

두 번째 어려움은 한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 외연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금은 한문학을 ‘한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에 대한 모든 연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한자라는 표기 체계가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도구였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인데, 이에 따라 한문학은 문학뿐만 아니라 학문 일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자에게는 ‘한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몇몇 동향을 간추려내고 이를 대표하는 연구 성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

한편, 연구사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해당 연구 성과를 망라하여 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일일 것이다. 본고에 실린 연구 목록은 본 학술지(『국문학연구』)의 성격에 맞춰 ‘국문학’에 포함되는 ‘한문학’ 연구 성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학 이외에 經學, 史學, 禮學, 字學, 語學, 漢文教育 등이 모두 한문학에 포함되지만, 필자에게는 이들을 다룰 능력이 없다. 필자의 게으름이나 실수로 인해 목록에 수록되지 못한 연구 성과들도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³⁾

2. 교양서의 증가와 연구서의 감소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모두 학술논문에 속하므로 각각에 적합한 연구 분야나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둘을 따로 나누

2) 한문학의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연구 인력과 방법 또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와 연구소 같은 시스템들이 독자성을 지녀 서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退溪나 茶山을 연구하는 학회와 연구소는 여럿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로렌스 학회’[D. H. Lawrence Society]와 같은 ‘權釋 학회’나 ‘三淵 연구소’가 없다.

3) 문학 가운데서도 시조, 가사, 소설, 야담 등에 속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으로 미루어볼 수밖에 없다.

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단행본은 성격상 학술서, 교양서, 교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지난해 출간된 단행본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에 간행된 한문학 관련 단행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중을 위한 교양서이다. 최근 일반 대중을 위한 한문학 교양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문 고전을 선별하여 번역한 것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번역문을 먼저 읽고 원문을 부기한 후, 간단한 주석이나 설명을 덧붙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 독자를 고려한 편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을 위한 교양서의 증가는 한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그 저변을 넓힌다는 가치를 지닌다. 이미 번역된 적이 있는 한문 고전을 새로운 독자층의 취향에 맞게 다시 번역해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⁴⁾

한문고전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교양서의 출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의 교양서들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 현대국어에 가까운 번역문, 정확한 표점을 통한 원문의 제시, 풍부하고 자세한 주석과 해설, 함께 읽어볼 만한 다양한 참고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일반 독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덧붙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집필자의 의도에 편집자의 조언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朴趾源 저, 고미숙·김진숙·김풍기 역)는 수백 장의 그림과 사진, 풍성한 해설이 장점인 번역서이다. 이 책은 편제 또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보인다. 여정에 따른 편년체 방식의 글 뒤에 해당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사체 글을 붙여 순차적으로 편제하였다. 또한 읽기 어려운 부분은 회곡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의 글상자로 처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였다.⁵⁾

4) 한문 고전 번역서가 연속 기획물로 출간되는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예로 ‘둘베개’ 출판사와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의 고전번역 시리즈를 들 수 있다.

5) 『안동 무실 마을: 문헌의 향기로 남다』(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허경진),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2(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등이 풍부한 사진과 그림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운 책들이다.

한편 詩文을 위주로 이루어지던 번역물의 성격이 다양화되었다는 특징도 보인다. 『호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정민·이홍식 역)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家訓과 遺言을 뽑아 번역한 것이고, 『詩名多識』(정학유 저, 허경진·김형태 역)은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가 『詩經』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이름을 고증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연경, 담배의 모든 것』(이옥 저, 안대회 역)은 18세기의 李鈺이 쓴 담배와 흡연에 대한 저술인 『烟經』을 번역한 것이다.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와 해설을 풍부하게 덧붙이고 있어서 연구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虞裳剩馥: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강순애·심경호·허경진·구지현) 또한 교양서와 연구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책이다. 이 책은 이언진의 관련 행적, 서지, 편찬과정에 관한 논문과 번역문을 수록하고 원문을 컬러로 영인하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다.⁶⁾ 悼亡詩, 悼朋詩, 哭子詩, 自輓詩 등 輓詩를 소개한 『옛사람들의 눈물: 조선의 만사 이야기』(진송열)와 160여 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소품문을 번역한 『고전 산문 산책』(안대회)도 해설을 강화하여 일반 독자와 전공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아울러 전공자를 위한 새로운 번역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조재삼의 『松南雜識』(강민구 역)가 번역되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큰 『소현심양일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와 『瀋陽狀啓』(정하영 외 역)가 번역되었다. 과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하였던 『굴산 임하필기』, 『다산 정약용 시문집』, 『담헌서』, 『목은 이색 문집』, 『백호 윤휴 전서』, 『사행록 해행총재』, 『상촌 신희 문집』, 『순암집』, 『여헌집』, 『정숙편 동문선』, 『청장관 이덕무 전서』, 『택당집』, 『패관서 대동야승』 등이 한국학술정보에서 새롭게 간행된 것 또한 환영할 만한 일이다.⁷⁾

교양서가 증가한 것과 달리 전공자를 위한 연구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

6) 『우상잉북』은 李彥瑱(1740~1766)이 지은 일본 기행시인 오연장편의 海覽篇과 筆帖을 오세창이 묶은 것이다.

7) 이밖에 『증보역주 지천선생집』(최명길 저, 정량완·심경호 역), 『藥泉集』(南九萬 저, 성백효 역), 『유득공의 21도 회고서』(유득공 저, 이민홍 역), 『해동약부』(이익 저, 이민홍 역), 『국역 해동사부』(金錫胄 편, 이관성·정만호·이정규·이제숙 역), 『이항건문록: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 이야기』(유재건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등도 전공자에게 도움이 되는 번역서들이다.

다.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거나 기존에 발표했던 학술논문을 고쳐 일정한 주제 아래 다시 묶은 것들이 연구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들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전문 연구서의 출간이 뜸했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소논문으로는 폭넓은 대상을 다루거나 다양한 연구 시각을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전문 연구서들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이론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점차 척박해져가는 풍토를 비판한 박희병의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가 주목된다. 이 책은 한국문학의 장르체계와 역사를 ‘유교’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이론서이다. 동아시아 전반에 미친 유교의 영향 아래 한시와 한문산문의 하위 장르를 체계화하고 각 장르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특히 한국에만 존재했던 몽유록, 야담, 心性 假傳의 특징을 ‘한국적 유교’에서 찾는 시각이나, 장르의 변천에 따라 문학사를 재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종호의 『온유돈후: 퇴계학 에세이』는 그간 자신이 쌓은 성과를 정리한 퇴계학 연구서이다. 제목에서 ‘에세이’라 한 것처럼 체계가 다소 산만하지만 퇴계의 문예미학, 우주론과 생태사상, 독서론 등 사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지문자의 특징, 이현보 시조와 퇴계 시조의 비교, 역동서원 창건의 경과, 친형인 李滌, 제자인 朴雲과 趙穆, 이익과 정약용 등이 이해한 퇴계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를 망라하였다. 해박함을 과시했던 전통적인 한문학 글쓰기를 연상시키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해박함과 함께 嚴密하고 精緻함 또한 전통적인 한문학 글쓰기의 장점이 라 할 수 있는데, 김명호의 『환재 박규수 연구』가 좋은 예라 할 만하다. 박규수 연구의 3부작 가운데 제2부에 해당하는 이 연구서는, 박규수의 삶을 통해 19세기를 성찰함으로써 이 시기의 변화가 현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루고 있는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고증 아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물과 시대를 논의하는 전범을 보여준다.

3. 연구 영역의 확장과 연구 방법의 다각화

연구의 의의는 새로운 연구대상을 발굴하여 소개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데서 비롯한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이러한 시도들을 일별하기에 가장 좋은 예는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이다. 여기에는 ‘한국한문학 연구의 신기획’이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연구 방법을 고민한 연구 성과들이 수록되어 있다. 기조논문(박성규)을 서두로 하여, 18세기(정민)와 19세기(박무영) 한문학을 대상으로 한 단대사적 접근, 동아시아 서적 유통(진재교)과 통신사 문학(구지현)을 통한 문화교류사적 접근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정자와 원림(성범중), 조선후기 영남 경학(최석기)을 다룬 논문들은 문화권역의 독자성과 소통을 모색한 것으로, 지방문학적 관점에 따른 접근이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한 결과들이다. 뒷부분에 실린 금석문(심경호)과 해외 고문헌(황위주)을 고찰한 논문은 연구대상의 확장과 관련된다.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에 수록된 특집 논문들은 연구 대상의 확장과 연구 방법의 다각화라는 양 측면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에 이루어진 한문학 연구들의 성과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3.1. 새 자료의 발굴과 연구 대상의 확대

먼저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와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 정민은 정약용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꾸준히 발굴하고 소개하였는데,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 24수」, 「<茶山與黃裳書簡帖>의 내용과 자료가치」, 「다산과 은봉의 교유와 만일암지」,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見月帖』」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성과들이다.

한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 중 서지적·내용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영인·해제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解題集』(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과 함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간찰첩·시첩의 자료적 가치」(백승호),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小游散艸』外 權用正 시문집 일괄」(김영진) 등이 자료에 대한 소개와 고찰이라 할 수 있다.⁸⁾

「19세기 희곡 『北廂記』 연구」(안대회), 「미발굴 한문희곡 <百祥樓記> 연구」(정우봉)는 우리나라에 드물게 전하는 희곡 작품이 새롭게 발굴된 경우인데, 내용의 외설성으로 말미암아 世間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문학뿐만 아니라 풍속이나 사회사 등을 살피는 데도 유용한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이들의 외연을 확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동양한문학』 제26집에 실린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들’ 특집 논문들은 김종직의 학통을 다룬 성과들인데, 김종직(정경주)을 비롯하여 남효온(김남이), 김일손(김용철), 조위(김창호) 등이 다루어졌다.

한문학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과제인 學統과 師承 문제를 다룬 것은 『남명학연구』 제25집의 ‘滄洲 河愷 및 그 後裔들의 學問과 思想’, 『남명학연구』 제26집의 ‘玉洞 文益成 및 그 後裔들의 學問과 文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남명학이 계승된 양상을 추적하고 정리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하징과 문익성은 기존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처럼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동방학지』 141에 실린 ‘위당 정인보의 학문과 『담원문록』’ 및 『동방한문학』 제34집의 ‘紫巖 李民寔의 文學世界’ 특집 논문들 또한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주요 관심 대상이 된 작가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2007년도에는 洪吉周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⁹⁾ 홍길주와 그 一家의 文人들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에도 꾸준하였다. 「숙수님 공간에서의 ‘틈’과 홍길주의 念」(하지영), 「기호로 읽는 『孰遂念』」(최원경), 「沈瀼 洪吉周의 讀書趣向과 『書

8) 이밖에 「버클리대학 소장 이서구의 시집에 대하여」(이종목),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 資料 소개와 詩世界의 概略을 中心으로」(윤재환), 「대한제국기 주불공사 石下 金晚秀의 <일기> 자료에 대하여」(양지욱·구사회), 「李達이 鄭經世에게 준 餞別詩 한 수」(신익철), 「玄默子 洪萬宗의 『靑丘永言』 編纂에 관하여: 新發見 洪萬宗 著述 『覆瓿藁』 <梨園新譜序>를 중심으로」(김영호), 「월사 이정구의 감계 조직과 『감계첩』」(신영주) 등도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 고찰한 연구들이다.

9) 김은정, 「2007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제18호, 2008, 참조.

林日緯』(최식), 「19세기 초 沆瀣 洪吉周의 글쓰기 경향」(이홍식), 「沆瀣 洪吉周의 交遊 樣相과 文學 志向」(이홍식), 「沆瀣 洪吉周의 文章中原 探索」(이홍식), 「홍길주의 눈에 비친 대산 김매순」(이홍식), 「19세기 한문학의 계열과 논점: 沆瀣 洪吉周를 중심으로」(박무영), 「경진 패러디와 기호 조작의 세계: 洪吉周 작, <臯津經傳>과 <甘誓>, <武成>의 작품론으로」(박무영), 「海居 洪顯周의 書畫에 대한 관심과 收藏」(이군선), 「홍한주의 일기와 『지수염필』 저작」(김윤조), 「『西淵聞見錄』에 보이는 淵泉 洪奭周」(김새미오), 「沆瀣 洪吉周의 『孰遂念』: 지식과 공간의 인식」(崔嫺旻)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詩文 중심을 벗어나 다양한 문체에 대한 검토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대동한문학』 제28집은 ‘한국한문학 연구 영역의 확장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駢體文(박우훈), 辭賦(김진경), 科體詩(김동석), 簡札(김효경), 古文書(황위주), 頌讚(김종철) 등을 검토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기존의 한문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실용적인 산문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辭賦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에 부쩍 늘어난 것은 분명 반길 만한 일이지만,¹⁰⁾ 이는 辭賦가 비교적 詩文과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밖에 「이두식 변격한문의 역사적 실상과 연구과제」(심경호), 「靑詞의 성립과정과 문예적 특질」(홍선주) 등도 산문 문체의 연구 범위를 확대한 것들인데, 다양한 갈래의 산문 자료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근대의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지난해의 특징이다.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진재교·한기형 외), 「『環珍吟艸』의 성격과 표현방식」(황재문), 「최영년의 『詩金剛』과 1920년대 漢詩界」(조용호), 「『서북학회

10) 辭賦에 대한 연구로는 「濯纓 金駟孫의 賦에 대한 한 연구: 道友와 憂國哀情」(신태영), 「濯纓 金駟孫의 不屈의 삶과 賦」(신태영), 「龍巖 朴雲의 <次悶已> 賦에 나타난 志向意識」(이구의), 「李奎報와 蘇軾의 賦文學 比較 試攷」(신장섭), 「韓國 辭賦 작품에 형상화된 개인 情懷의 樣相」(김진경), 「許筠 賦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海東辭賦』 所載 作品을 중심으로」(김진경), 「김일손 賦의 미적 시공간」(김용철), 「申光漢의 辭賦文學: 讚頌·修身類」(김성수), 「허균의 <東征賦> 연구: 정철의 <관동별곡>과 김창협외의 <동정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곽미선) 등이 있다.

월보』의 『인물고』 구성과 서술의식』(임유경), 「1910년대 한문학 인식의 층위: 『매일신보』 사설을 중심으로」(신상필), 「한시에 표상된 근대의 풍경: 정만조의 일본 기행 한시를 중심으로」(박영미), 「20세기 계몽담론과 한문」(김진균),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변영만의 한문산문에 드러난 근대적 사유와 그 맥락: <如是觀><人性論>을 중심으로」(김진균),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김준형),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김명호), 「변영만의 국한문체 글쓰기 연구: 한문 전통의 활용을 중심으로」(김홍백) 등이 이러한 예이다.

한국 한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로 관심을 확대한 연구 또한 예년처럼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연행사와 통신사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인데,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3(조규익·신춘호·정영문 편)처럼 기존의 성과를 집약한 연구물이 나와 도움이 된다.

지난해에는 한국 한문학을 중국문학과 관계에서 조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¹¹⁾ 우리의 한문학이 중국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韓中の 한문학을 함께 고찰한 연구들이 많아진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단순히 영향 관계를 밝히거나 일면적인 유사성을 비교한 경우들도 보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한문학을 비교하는 일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과의 비교는 매우 수가 적어 「詩話와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의 비교 연구: 『破閑集』과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를 중심으로」(신은경) 정도가 눈에 띈다.

11) 「白居易詩文集東傳考: “鷄林賈人求詩說”의 眞僞 문제를 중심으로」(정선모), 「蘇軾文學初期受容樣相考」(정선모), 「李錕과 馮夢龍의 산문에서 通俗性和 眞情의 관계: 여성의 烈節을 소재로 한 傳을 중심으로」(이지양), 「세종 대 한유 문집의 편찬과 그 의미: 조선본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의 내용 분석」(정재철), 「<五百家註音辨昌黎先生集> 연구」(정재철), 「朝鮮後期 文人의 『史記』 認識과 評價에 관한 一考: 『項羽本紀』에 대한 諸家批評을 中心으로」(윤지훈),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원평도 문학의 수용 양상과 관련하여」(신익철), 「조선후기 왕사정 신운 수용 양상」(박종훈), 「朝鮮 正祖朝에 購入된 中國本の 書誌學的 研究」(임지영), 「17세기 초 문관출신 明使 接伴과 韓中 문학교류」(노경희), 「17세기 초 조선시의 중국 전파에 대한 조선 문단의 이중적 태도: 文才 과시 욕구와 詩文 유출에 대한 경계」(노경희), 「조선후기 韓·日 서적 교류 고찰: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김경숙), 「許筠과 王建의 宮詞百首 比較研究」(趙春艷), 「한·중 여성시가 비교연구: 허난설헌·주숙진의 작품을 중심으로」(윤영주), 「『열하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문화의 양상」(진병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3.2. 문학공간과 문화지리학에 대한 관심

지난해 한문학 분야에서는 문학을 탄생시킨 배경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문학연구』 제33집에 ‘중원 지역 전통문화의 문학지리학적 고찰’이라는 주제 논문들이 실려 있는데, 達川·淸風(권순궁), 華陽澗(한석수), 괴산(박연호), 충주(이종목) 등을 다루었다.

『대동한문학』 제29집은 ‘한문학의 창작현장과 관련 유적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문학과 그 창작공간에 대한 기초논문(이동환)과 함께 조식(이상필), 최치원(이구의), 이언적(이수환), 박인로(이종문), 정구(김학수)의 문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공간과 유적을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이 경상도 일대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지리학을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모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특집을 제외하고도 문학공간에 대한 논문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황위주), 「溪上 일대의 퇴계 관련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위치 고증」(정석태), 「『淸涼志』를 통해 본 退溪 李滉과 淸涼山」(전병철),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四宜堂」(이종목), 「尋眞洞 長水寺와 玉溪 盧禎」(이종목), 「華陽九曲·仙遊九曲의 完成過程과 華陽九曲圖」(이상주), 「南冥 曹植 遺蹟 小攷 (1): 山海亭과 新山書院을 중심으로」(이상필),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박종우), 「詩·書에서 드러나는 화양동 ‘非禮不動’의 崖刻과 煥章菴의 건립」(김용남), 「조선후기 한시에 나타난 화양동 공간의 이념화」(김성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김문기), 「횡계구곡과 횡계구곡시」(김문기), 「乾鳳寺 關聯 漢詩文의 研究」(한미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안의 누정기와 한시』(조창열), 『선비문학과 소수서원』(전재강) 등은 비슷한 성격의 단행본이다.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은 활발한 산수문학 연구와도 관련된다. 「조선시대 天冠山의 공간 인식 양상: 遊山文學을 중심으로」(박수진), 「조선 초·중기 名山文化로서 智異山의 正體性」(박용국), 「智異山 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山水認識」(강정화), 「정시한의 『산증일기』를 통해 본 당대인의 유

산문화 연구」(김종구), 「17~18세기 장동 김문의 산수문학 연구」(이효숙) 등은 산수와 문학의 연관을 살핀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연구들은 공간과 지역의 특징에 따라 한문학 텍스트의 내질이 변모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측면을 면밀히 고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지리산과 금강산에서의 문학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면 공간적 배경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었는가 등에 관한 답변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공간과 문학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3. 연구 방법의 다각화

지난해에는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모색되었다. 「21세기 현실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방향 재론」(임형택), 「19세기 문학사가 제기한 문제점들」(임형택)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문학을 포함한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논한 연구이다. 「조선후기 한문산문 연구의 비판적 검토」(강명관)와 「『서포만필』의 민족어 문학론 비판」(강명관)은 ‘근대’, ‘민족’ 등의 개념에 기댄 기존 연구의 시각을 비판한 것이고, 「조선후기 문인사회의 인정 욕망과 타자(성): 燕巖 朴趾源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류준필)는 오늘날 이용되는 개념 체계를 적용하여 한문학 텍스트의 존재 양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연구 시각과 관련하여 먼저 ‘性’과 ‘女性’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들이 눈에 띈다. 한문학 분야에서 性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여성 작가나 여성을 다룬 것들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지난해에도 많았는데, 예컨대 「『삼국유사』의 여성과 불교: 『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최정선), 「근대계몽기 개신 유학자들의 성 담론과 그 의의」(홍인숙), 「『內訓』과 ‘小學·烈女·女教·明鑑’의 관계 재고」(이경하), 「李鳳仙, 관기제도 해체기

12) 이처럼 문학공간과 문화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지방문학에 대한 관심과도 연관된다. 안순태, 「2005년도 한문학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제15호, 국문학회, 381~414면, 참조.

기생의 재생산과 사회적 정체성」(박영민), 「19세기 여성화가 雲楚의 회화활동과 그 성격」(박영민),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박무영), 「17세기 여성대상 산문의 남성의 여성인식과 여성의 삶」(김명순) 등이 그 예가 된다.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한국여성문학학회 편)과 『동아시아 여성문학의 지평』(김명희·김행숙·정은임 편저) 등은 여성문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단행본들이다.

그런데 『한국한문학연구』 제42집에는 ‘한국 한문학과 성담론’이라는 특집을 두어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닌 성욕이라는 시각에서 한문학 텍스트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강명관), 「조선후기 성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김경미), 「조선 후기 남성醜절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 情念 담론에서 利益 담론으로」(윤채근),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 예교, 금기와 위반의 拮抗과 그 辨證法」(진재교)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과거에 금기시되었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연구 주제를 하나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한문 텍스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문학 이외의 다른 갈래와 함께 한문학 텍스트를 고찰함으로써 단일한 연구 시각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려는 연구들도 주목된다.¹³⁾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최재남), 「高麗時代의 漢詩와 國文詩歌」(여운필), 「禪詩와 時調의 交涉 片鱗」(양희찬), 「신흙의 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연구: 연정을 주제로 한 시조를 중심으로」(양태순), 「〈취유부벽정기〉의 삽입 시와 서사 구조」(박일용), 「詩歌文學史에서 漢文詩歌의 위상과 의미」(박경주), 「〈關東別曲〉 한역의 추이와 그 시가사적 의미」(조혜숙), 「반계 류형원의 시조 한역 양상과 의미」(김명순)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문학 이외의 대상을 끌어들여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나 작가의식을 밝히려는 논의들도 많았다. 그림이나 글씨는 한문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인데, 이들을 다룬 것으로는 「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

13) 『한국한시연구』 제16집에 수록된 “한국 한시사의 전개와 국문시가” 특집 논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에 관한 연구: 成海應의 「書畫雜誌」와 南公轍의 「書畫跋尾」를 중심으로, (손혜리), 「申緯의 繪畫收藏과 鑑識眼」(금지아), 「조선후기 唐詩詩意圖에 나타난 朝鮮風 南宗文人畫의 실천과 변용」(금지아), 「석정 이정직의 서예비평 연구: 원고 이광사의 <원고진적>을 중심으로」(구사회), 「정조의 시서화 연구: 국왕 문예의 정치성과 심미성」(이인숙),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연구」(이은영)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문학의 존재 양상을 ‘문화사’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찰하려는 연구 방법과 연관된다. 「18세기 한문학 연구와 문화사적 시야」(정민)는 이러한 방법론의 정당성과 의의를 밝힌 것이며, 한문고전이 텍스트로 존재한 양상을 서지학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는 「근대전환기와 한시의 대응: 근대 인쇄 매체와 한시와의 상관성」(진재교), 「세책 대출장부 연구 1: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전상욱),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이민희), 「宛委閣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박용만),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남권희) 등이 있다.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박수밀)는 독서법의 특징에 주목한 것인데, 책을 읽거나 읽히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교육의 실상을 고찰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茶山의 子息教育 世界: 流配地에서 보낸 書簡과 家誡를 중심으로」(김상홍), 「『현종강서원일기』: 왕세손 보양과 교육의 실상」(김은정), 「『肅宗講學廳日記』를 통해 본 元子 보양 및 교육의 실상과 의미」(김은정), 「전통 시대 한문 학습법에 관한 일고찰: 영조의 장현세자 교육을 중심으로」(신영주)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조선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이종묵)과 「<팔선와유도>와 남승도 놀이」(이종묵)는 한시가 놀이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실상을 살펴본 논문으로, 창작 상황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가 된다. 「韓國漢文學에 表象된 고양이의 性格」(손찬식)이나 「한시와 닭시」(이하상) 등은 특정 소재와 연관된 한문학 텍스트를 검토하고 소개한 것들이다.

이밖에 시가와 소설에서 진행되던 ‘문학치료’ 연구 방법이 한문학에도

도입되었다. 『열하일기』 내 <장대기>, <강녀묘기>를 대상으로 살펴 본 독서행위와 문학치료의 관계』(서은아), 『枕肱懸辯의 글쓰기 방식과 문학치료』(김종진), 『<호질>의 문학치료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박세아) 등이 그러한 예인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치료’라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미미하여 본래의 취지인 실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 맺음말

지난해에 이루어진 한문학 관련 논문들은 일일이 검토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다. 범위와 방법이 매우 넓고 다양하여 이를 요약하거나 가치 있는 연구를 뽑아 소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터에 지난해 한문학 연구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 매우 외람된 것일 수밖에 없다.

다만, 다양한 연구주제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한문학의 오랜 전통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영역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지적해야 할 듯하다. 앞서 교양서와 달리 전문 연구서가 감소하였음을 살펴보았거니와, 학술논문에도 있어서는 거시적인 시각 아래 작성되는 논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예컨대 문학사, 詩風, 文風, 문단, 갈래 등에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는 연구의 양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현행 학술평가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연구업적을 계량하여 평가하는 상황은 장기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소논문들이 보다 폭넓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징검다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지엽적이고 쏠쏠한 것을 대상으로 삼는 일회적인 소논문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폭이 확대되는 것만큼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깊이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 역시 그 수가 많

지 않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 즉 해석이 필요하다. 논문은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결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편의 논문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쫓기다 보니 ‘논증’이 아닌 ‘설명’에 가까운 논문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문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 목적은 한문학의 존립 의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문학의 주요 연구대상이 ‘奇’의 성격을 지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문학 담당층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唐詩, 宋詩, 古文, 小品文 등의 내적 특질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었다면, 한문학의 존립 근거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奇異한 것은 당장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것에 익숙해진다면 사람들은 곧 새로운 奇異를 찾게 마련이다. “奇와 正이 並出하고 어울려야만 진정한 奇”라는 한문학 격언을 엄두에 둘 때가 아닌가 싶다.

한편, 한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문 텍스트가 지닌 가치를 찾아내어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문 텍스트를 해당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한문학이 성립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구서와 번역서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문학의 기초인 ‘考證’ 즉 標點, 校閱, 註釋, 翻譯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¹⁴⁾ 향후에도 기초에 충실한 연구들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14) 이러한 예로 「한문고전 번역의 특수성의 안과 밖」(진재교), 「『訓民正音』 <序文>의 ‘者’·‘놈’의 意味와 相關한 古典 再檢討의 必要性 論議」(정요일), 「한문고전 번역에서 학술번역의 개념과 그 역할」(심경호), 「한문 문헌에 대한 교감의 전통과 그 유형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신영주), 「『承政院日記』의 翻譯과 定本化 問題」(신승운),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번역의 문제」(박혜숙),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김혈조), 「조선후기 類書의 오류 양상: 『松南雜識』의 경우」(강민구),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서현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김영죽)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1) 영인·해제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南冥學 關聯 文集 解題: 南冥門人一部 및 私淑人一部』 2,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梅月堂詩藁』(김시습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梅月堂詩四遊錄』(김시습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雜卉園集』,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靑坡集』,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虛庵遺藁』(鄭希良 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解題集』,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국학진흥연구소사업추진위원회, 『列聖王妃世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8.
- _____, 『藏書閣少藏拓本資料集 6: 朝鮮時代 私家(帖裝本)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8.
- _____,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경용, 『장서각 수집 교육·과거 관련 고문서 해제: 원문자료집』, 민속원, 2008.
- 김명균·신익철·문희순, 『장서각 수집 필첩 해제』, 민속원, 2008.
- 김상태·남달우·양운모·오용섭, 『古書解題: 仁川廣域市 市立圖書館 所藏 藏書 解題集』,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2008.
- 김소은, 『장서각 수집 민원·소송 관련 고문서 해제』, 민속원, 2008.
- 동궁일기역주팀, 『影印 昭顯東宮日記』 1~2, 민속원, 2008.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서해제』 9~10, 평민사, 2008.
- 이명희, 『장서각 수집 지방자치조직 관련 고문서 해제』, 민속원, 2008.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1~2, 평민사, 2008.
- 전관수·안장리, 『장서각 수집 고서 해제: 尙州 愚伏 鄭經世 宗宅·夫餘 九堂 朴世榮 宗宅 所藏 古書』, 민속원, 2008.

* 한문학의 하위분야를 주제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이 열람에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의적인 구분에 의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다가 분야를 확정하기 어려운 연구들도 많으므로 前例에 따라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으로 나누어 참고문헌을 작성하였다.

- 전성호, 『장서각 수집 물가사 자료 해제 및 통계』, 민속원, 2008.
 정성희, 『장서각 수집 역서자료 해제』, 민속원, 2008.
 정승모, 『장서각 수집 민속관련 고문서 해제: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민속과 사회상』, 민속원,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影印 尙方定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8.

2) 역주서

- 간호윤 편역, 『기인기사: 조선의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송순기 저), 푸른역사, 2008.
 강국주 역, 『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굴처럼: 이덕무 선집』(이덕무 저), 돌베개, 2008.
 강민구 역, 『교감국역 松南雜識』(조재삼 저), 소명출판, 2008.
 _____ 역, 『國譯 樂齋先生文集』, 이회문화사, 2008.
 강정화 역, 『지리산유람록,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2008.
 _____ 역, 『지리산유산기 선집』, 브레인, 2008.
 강혜선 역, 『조선 선비의 일본견문록: 해유록, 대마도에서 도쿄까지』(신유한 저), 이마고, 2008.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역, 『譯註 巍巖 李柬의 철학과 삶』 1~4(이간 저), 온양문화원, 2008.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역,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朴趾源 저) 상·하, 그린비, 2008.
 광 정 역, 『인생 백년이 한 판의 바둑 같고: 고려왕조 시대부터 조선왕조 시대까지 한국 사대부들의 바둑시』, Oromedia, 2008.
 권인용·심경호·정태섭·하정식·홍성구 역, 『연행사와 통신사』(후마 스스무 저), 신서원, 2008.
 김갑기 역, 『신자하 시선』(신위 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김광순·김시항·김중우·문경현·이흥진 역, 『國譯註解 松溪先生實紀』(申季誠 저), 경북대 부설 퇴계연구소, 2008.
 김남윤 역, 『역주 효종동궁일기: 무자년·기축년』 1~2, 민속원, 2008.
 김대중 역, 『도산에 사는 즐거움: 이황 선집』(이황 저), 돌베개, 2008.
 김덕수 역, 『靈壽閣頌과 親臨宜醞圖』,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김동욱 역, 『국토산하의 시정: 노봉 김극기 시선』, 이회문화사, 2008.

- _____ 역, 『새벽 강가에 해오라기 우는 소리: 국역 기문총화』 상·중·하, 아세아문화사, 2008.
- 김동준 외 역, 『역주 소현심양일기: 소현을유동궁일기』 4, 민속원, 2008.
- 김수영 역, 『새벽에 홀로 깨어: 최치원 선집』(최치원 지), 돌베개, 2008.
- 김우정 역, 『簡易集』(崔崧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김중수·김남윤·신하령·이남중 역, 『역주 소현심양일기』 1, 민속원, 2008.
- 김창규 역, 『蘆溪詩評釋』, 박이정출판사, 2008.
- 김태준·김효민 역, 『鑿山問答』(洪大容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나종면·박해당·주기평·김중수·김남윤·신하령 역, 『역주 소현심양일기』 3, 민속원, 2008.
- 노기욱 역, 『임진 義兵將 魯認의 금계집 국역본』(금계 노인 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 문경새재박물관 편역,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玉所 權變의 “遊行錄”』, 민속원, 2008.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역, 『국역·영인 충무공유사』,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08.
- 민족문화추진회 역, 『신편 국역 골산 임하필기』(이유원 지) 1~9,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다산 정약용 시문집』(정약용 지) 1~9,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담헌서』(홍대용 지) 1~5,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목은 이색 문집』(이색 지) 1~11,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백호 윤희 전서』(윤희 지) 1~11,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사행록 해행총재』 1~16,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상촌 신희 문집』(신희 지) 1~7,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순암집』(안정복 지) 1~5,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여헌집』(장현광 지) 1~4,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정숙편 동문선』 1~23,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청장관 이덕무 전서』(이덕무 지) 1~11,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택당집』(이식 지) 1~9,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신편 국역 패관서 대동야승』 1~35, 한국학술정보, 2008.

- 박동욱·서신혜 역, 『표암 강세황 산문전집』(강세황 지), 소명출판, 2008.
- 박병익 역, 『역옹패설』(이재현 지), 보고사, 2008.
- 박준원·남재주 역, 『국역 수파집』(정경주 교열), 신지서원, 2008.
- 박혜숙 역, 『다산의 마음』(정약용 지), 돌베개, 2008.
- 박홍갑 역, 『筆苑雜記』(서거정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배규범 역, 『무의자 시집』(혜심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부경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역,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민속원, 2008.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역주 소현동궁일기』 1~6, 민속원, 2008.
- 성당제·유연석·이남중 역, 『역주 소현분조일기』 1~4, 민속원, 2008.
- 성당제·유연석·김남기·김동준·정길수 역, 『역주 소현심양일기』 2, 민속원, 2008.
- 성백효 역, 『藥泉集』(南九萬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송희준 역, 『조선의 마지막 문장: 조선조 500년 글쓰기의 완성』(이건창 지), 문학동네, 2008.
- 신해진 편역, 『朝鮮後期 夢遊錄』, 역락, 2008.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이향견문록: 이조시대 탁월한 서민들 이야기』(유재건 지), 문학동네, 2008.
- 심경호 역, 『文字講話』 1(시라카와 시즈카 지), 바다출판사, 2008.
- 안대회 역, 『고전 산문 산책』, 휴머니스트, 2008.
- _____ 역, 『연경, 담배의 모든 것』(이욱 지), 휴머니스트, 2008.
- 안동교 역, 『국역 노석유고: 任奇鉉의 詩와 日記』(임기현 지), 심미안, 2008.
- 오이환 역, 『南冥集』(조식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원주용 역, 『고려시대 산문 읽기』,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역, 『조선시대 산문 읽기』, 한국학술정보, 2008.
- 윤주필 편역, 『한국 우언산문 선집』 1·2, 박이정출판사, 2008.
- 윤호진 역, 『삼강행실도』(철순 외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_____ 역, 『수춘만록』(임방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이관성·정만호·이정규·이재숙 역, 『국역 해동사부』(金錫胄 편), 보고사, 2008.
- 이동근 역, 『殊異傳 逸文』(박인량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이동재 역, 『조선의 젊은 선비들 개성을 가다』(채수 외 지), 보고사, 2008.
- 이민홍 역, 『유득공의 21도 회고시』(유득공 지), 새미, 2008.
- _____ 역, 『해동악부』(이익 지), 문자향, 2008.
- 이정훈 역, 『서하집』(임춘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이홍식 편역, 『상상의 정원: 항해 홍길주 산문선』(홍길주 지), 태학사, 2008.
- 정경훈 역, 『서천의 금석문』, 서천문화원, 2008.

- 정량완·심경호 역, 『증보역주 지천선생집』(최명길 지), 선비, 2008.
- 정민 역, 『탐라문건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정운경 지), 휴머니스트, 2008.
- 정민·박동욱 역, 『아버지의 편지』, 김영사, 2008.
- 정민·이홍식 역, 『호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조선시대 명문가의 가훈과 유언』, 김영사, 2008.
- 정하영 외 역, 『瀋陽狀啓: 심양에서 온 편지』(昭顯世子 侍講院 지), 창작과비평사, 2008.
- 조기영 역, 『동몽선습 외』,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_____ 역, 『백련초해』(김인후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조남권·박은정 역, 『한국고전비평론』 3, 민속원, 2008.
- 최지녀 역, 『다산의 풍경: 정약용 시 선집』(정약용 지), 돌베개, 2008.
- 함양문화원 편역, 『國譯 唐谷鄭先生實記』, 咸陽文化院, 2008.
- 허경진 역, 『난중일기』, 중앙북스, 2008.
- _____ 역, 『南冥 曹植 詩選』, 평민사, 2008.
- _____ 역, 『三宜堂 金氏 詩選』, 평민사, 2008.
- _____ 역, 『崔松雪堂·吳孝媛 詩選』, 평민사, 2008.
- _____ 역, 『추재기야: 18세기 조선의 기인 열전』, 서해문집, 2008.
- _____ 역, 『許蘭雪軒 詩集』, 평민사, 2008.
- 허경진·김형태 역, 『詩名多識: 조선의 인문학자 정학유의 박물노트』, 한길사, 2008.
- 홍순석 역, 『봉래시집』(양사언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_____ 역, 『挹翠軒遺稿』(박은 지), 지식을만드는지식, 2008.
- 황위주·최은주 역, 『脫草·譯註 秋淵先生日記』, 화성시, 2008.

3) 연구서

-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박이정, 2008.
- 강순애·심경호·허경진·구지현, 『虞裳剩馥: 천재시인 이언진의 글향기』, 아세아문화사, 2008.
- 강신항·이종묵·권오영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2008.
- 김명희·김행숙·정은임 편저, 『동아시아 여성문학의 지평』, 보고서, 2008.
-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김성언, 『붓끝으로 시대를 울다: 굴곡진 정사의 행간을 채우는 시와 노래들』, 웅진씽크빅, 2008.

- 김신중, 『담양의 누정 기행』, 담양문화원, 2008.
- 김 영, 『한국한문학의 현재적 의미』, 한울아카데미, 2008.
- 김영미, 『奇簡과 유몽인의 산문』, 태학사, 2008.
- 김용태,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옥수 조면호의 시 세계』, 돌베개, 2008.
- 김은집, 『南窓 金玄成: 계곡 장유의 눈으로 본 남창선생의 생애와 시문학』, 시서화 문화원, 2008.
- 김종순, 『崔松雪堂 文學 研究』, 경인문화사, 2008.
- 남명학연구원 편, 『남명학과 연구의 신지평』, 예문서원, 2008.
- 류성준, 『淸詩話와 朝鮮詩話의 唐詩論』, 푸른사상, 2008.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 방은 선생 추모문집 간행위원회 편, 『放隱 成樂熏 先生 三十週忌追慕文集: 韓國 學의 人文學』, 경인문화사, 2008.
- 신장섭, 『석북 신평수와 「관서악부」 연구』, 북스힐, 2008.
- _____, 『한국의 樂府詩와 작품 세계』, 이치, 2008.
- 심경호, 『자기 책 몰래 고치는 사람』, 문학동네, 2008.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편, 『안동 무실 마을: 문헌의 향기로 남다』, 예문서원, 2008.
- 안동준, 『한국 도교문화의 탐구』, 지식산업사, 2008.
- 안영길, 『조선 위항인의 문학과 풍류』, 북코리아, 2008.
- 양승민, 『우연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學古房, 2008.
- 원주용, 『동양의 지혜, 그리고 현대인의 삶』,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목은 이색 산문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윤채근, 『논어 감각: 인생의 정점에서 고전을 마주하다』, 휴머니스트, 2008.
- _____, 『한문소설의 욕망과 구조』, 소명출판사, 2008.
- 이민희, 『조선을 훔친 위험한 冊들: 조선시대 책에 목숨을 건 13가지 이야기』, 글항아리, 2008.
- _____, 『조선후기 최고의 북 에디터 조신선』, 문화재청, 2008.
- 이상필 외, 『滄州 河愷 및 그 後裔들의 學文과 思想』(남명학연구총서 제7집), 숲이출판사, 2008.
- 이정화, 『柳成龍先生 詩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2008.
- 이재원, 『지봉 이수광의 문학세계』, 한국학술정보, 2008.
- 이하상, 『한시와 낚시』, 소와당, 2008.
- 이종호, 『운유돈후: 퇴계학 에세이』, 아세아문화사, 2008.
- 이혜순 외,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임형택·한기형·이혜령·류준필 편, 『흔들리는 언어들: 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장을병, 『이승휴의 삶과 정치활동』, 경인문화사, 2008.

전송열, 『옛사람들의 눈물: 조선의 만시 이야기』, 문학동네, 2008.

전재강, 『선비문학과 소수서원』, 박이정출판사, 2008.

정병현,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제이앤씨, 2008.

정우락, 『남명과 퇴계 사이』, 경인문화사, 2008.

정후수, 『추사 김정희 논고』,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8.

조규익·신춘호·정영문 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1~13, 학고방, 2008.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2, 한울, 2008.

조창열, 『천안의 누정기와 한시』, 한국학술정보, 2008.

진재교·한기형 외,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차용주, 『改稿 韓國漢文學史』, 아세아문화사, 2008.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허경진,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沈慶昊, 『東北亞文化交流與經典詮釋 17: 十七到十九世紀朝鮮大學說的新傾向』,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08.

2. 학위논문

1) 박사논문

강지희, 「梅月堂 詩에 있어서의 內的葛藤과 現實認識」,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성희, 紫霞 申緯의 文人畫論 研究: 題畫詩를 中心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익재, 「來庵 鄭仁弘의 現實對應과 그 門人集團의 師承意識」, 경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재임, 「任允摯堂의 性理學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정민, 「松江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自然觀 研究: 漢詩를 中心으로」, 중앙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김중현, 「金克己 詩世界 研究」, 중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문정우, 「修堂 李南珪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경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박유리, 「한문의 문장구성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박종훈, 「조정 박제가 시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백광호, 「한문과 수업의 독해 양상에 관한 관찰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백미나, 「高麗時代 墓誌銘과 列傳의 比較 研究」,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서정화, 「이규보 산문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서현경, 「『열하일기』 정본의 탐색과 서술 분석」, 연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신범식, 「柏谷 金得臣 文學 研究」, 한성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梁東植, 「『金笠詩集』 판본과 번역 양상 연구」, 순천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윤지훈, 「18世紀 農巖系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雪橋 安錫傲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이성민, 「汾西 朴瀾 文學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이은희,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이인숙, 「정조의 시서화 연구: 국왕 문예의 정치성과 심미성」, 영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이효숙, 「17~18세기 장동 김문의 산수문학 연구」, 강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전재동, 「17세기 율곡학파의 논어 주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정광무, 「洛坡 柳厚祚 研究」,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조선욱, 「『박소촌화』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조항덕, 「三峯 鄭道傳의 思想과 그 文學的 具現」,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진병빙, 「『열하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문화의 양상」,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최원경, 「沈澮 洪吉周의 『孰遂念』: 지식과 공간의 인식」,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8.

2) 석사논문

- 권오흠, 「五山 車天輅 詩에 나타난 不遇意識 考察」,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경민, 「鶴峯 金誠一의 漢詩에 나타난 現實意識 研究」,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동건, 「李器之의 『一庵燕記』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병주, 「『삼국사기』에 나타난 충효사상 연구: 「열진」을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선주, 「학사 김응조의 삶과 시세계」,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영시, 「만오 박래겸의 생평과 문학세계」,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우경, 「梅泉 黃玟의 憂國詩 研究: 現實認識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종구, 「정시한의 『산중일기』를 통해 본 당대인의 유산문화 연구」,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영, 「漢源 盧毓 漢詩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은, 「鄭道傳 詩 研究: 詩 世界에 나타난 改革家의 面貌를 中心으로」,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현, 「〈예덕선생전〉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혜, 「『東人詩話』에 나타난 道德論과 格律論의 相關性」, 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진경, 「寒水齋 權尙夏의 漢詩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하나, 「亨齋 李稷의 漢詩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홍백, 「변영만의 국한문체 글쓰기 연구: 한문 전통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노경문, 「梅溪 曹偉의 生涯와 作品世界: 그의 多邊의 삶의 樣相과 意識性向을 中心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노희준, 「李鈺의 『俚言』 연구: 정서별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도창주, 「金時讓의 筆記文學 研究: 『涪溪紀聞』·『紫海筆談』·『荷潭破寂錄』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류지홍, 「일제 시대 한자 교재 『동천자』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명평자, 「金陵 南公轍의 古文論 研究」,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세화, 「〈호질〉의 문학치료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수진, 「春亭 卞季良의 詩文學 研究」,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숙희, 「湖陰 鄭士龍의 詩 研究」,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재현, 「김삼의당의 한시에 나타난 지향의식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정옥, 「員嶠 李匡師의 「書訣」 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정옥, 「익재 소악부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진환, 「『花郎世紀』의 傳記文學의 特性 研究」, 부산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박혜민, 「〈삼헌습유〉의 인물형상과 서술기법」,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백은하, 「趙秀三의 『紀異』 研究」,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변구일, 「계곡 장유 산문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변영연, 「향량고사를 소재로 한 傳 비교 연구: 李光庭과 李安中의 傳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성화민, 「이옥의 『이언』에 나타난 여성 의식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송은정, 「梅竹軒 成三問 詩 研究」,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신창수, 「『說』의 主題樣相과 敘述技法 研究: 『東文選』 所載 『說』을 中心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8.
- 안소라, 「修堂 李南珪 漢詩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양소연, 「〈東明王篇〉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양영옥, 「『松泉筆譚』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양 희, 「삼호정시단의 한시 연구」, 중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엄경섭, 「이옥의 전애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우갑순, 「杞園 魚有鳳의 散文世界에 對한 研究」,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유삭몽, 「한·중의 〈추홍팔수〉 차음시 비교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유인희, 「임·병 양란기 전쟁시가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윤영주, 「한·중 여성시가 비교연구: 허난설헌·주숙진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도훈, 「履園 李晩秀의 生涯와 散文 研究」, 계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미영, 「『초결백운가』를 활용한 초서 학습 방법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상봉, 「黃胤錫 한시에 나타난 孤意識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승현, 「艸衣 意恂의 詩文學 研究: 意境樣相을 中心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영섭, 「초려 이유태의 『사서답문-대학』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윤정, 「麟齋 李種學의 漢詩 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진숙,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창업, 「拙翁 崔滄의 『拙藁千百』 研究」,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임영길, 「心田 朴思浩의 燕行과 韓中文學交流」,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임효정, 「李穡 漢詩에 나타난 歲時風俗의 樣相 研究」,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장성덕, 「默齋李文樾의 流配時期 交遊樣相」, 경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장 예, 「서왕모의 한국문학적 수용 양상」, 대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장윤선, 「西堂 李德壽의 碑誌類 散文 研究」,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정동진, 「許蘭雪軒의 家庭環境과 女性意識」, 강릉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정선용, 「三灘 李承召의 詩意識과 詩世界」,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정하인, 「眉巖 柳希春의 交遊關係 研究」,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정홍과, 「허균의 전애 나타난 인물의 성격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조수진, 「春亭 卞季良 漢詩의 一研究」,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조진영, 「淸江 李濟臣의 詩文學 研究」,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조춘연, 「許筠과 王建의 宮詞百首 比較研究」,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차선훈, 「조선후기의 서사한시 연구: 전란 극복 모티프를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최두현, 「太古 普遇 禪詩의 研究: 悟道·山居 警策의 詩을 中心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최용순, 「이옥의 전애 연구: 문체반정과 현실에 대한 극복 태도」,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최은주, 「이광사 『서결』의 서예론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한미영, 「乾鳳寺 關聯 漢詩文의 研究」, 강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한미진, 「물천 김진호의 생애와 학문」,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함귀남, 「삼국시대 인물서사의 후대적 재현·변모 양상: 악부의 애정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황혜경, 「허난설헌 한시를 통해서 본 여성의식」,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3. 학술지 논문

- 강명관, 「『서포만필』의 민족어 문학론 비판」,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회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한문산문 연구의 비판적 검토」, 『애산학보』 42, 애산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체제의 洋人 지배와 반인의 대응」, 『한국문화연구』 4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강민구, 「樂齋의 救國 抗爭과 講學 活動」,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문학,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類書의 오류 양상: 『松南雜識』의 경우」,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類書의 『康熙字典』과 『韻府群玉』 인용 양상: 『松南雜識』의 경우」,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滄海詩眼』을 통해 본 18, 9세기 文學 批評 研究」,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강석중, 「대학 한문 교육의 현실과 문제: 인제대학교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한자한문연구』 4, 고려대학교 부설 한자한문연구소, 2008.
- 강정화, 「역현 하달진의 삶과 그 역할」, 『남명학연구총서』 7,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智異山 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山水認識」,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滄海 文尙海의 문학 연구」,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강혜규, 「〈愁城誌〉의 주제의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_____, 「삼교 安錫徽의 <劍女> 研究: 女俠敘事 傳統의 繼承과 變容」,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와 자연」, 『민족문화사연구』 36, 민족문화사학회, 2008.
- _____, 「천군계 작품의 史的 고찰」, 『정신문화연구』 통권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悔窩 安重觀의 詩에 나타난 自我와 世界」,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곽미선, 허균의 <東征賦> 연구: 정철의 <관동별곡>과 김창협 의 <동정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곽진, 「詩筆로 지켜낸 麗末의 知性: 耘谷의 詩筆이 史筆을 누르다」,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구본현, 「老稼齋 金昌業의 東庄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 _____, 「畏齋 李端夏의 文學觀과 漢詩」,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제목을 통한 한시 해석의 중요성과 그 이유」, 『한국문학논총』 48, 한국문학회, 2008.

- _____, 「한문학의 전통과 박목월의 <운사월>」,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
회, 2008.
- 구사회, 「근대 동아시아 건국지도자의 한시문학: 모택동·이승만·호지명을 중심으
로」, 『한민족문화연구』 25, 한민족문화학회, 2008.
- _____, 「석정 이정직의 논시시 연구」,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석정 이정직의 서예비평 연구: 원교 이광사의 <원교진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2, 동양고전학회, 2008.
- 구지현, 「1711년 신묘통신사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필담을 통한 상호소
통」,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학 교류의 전개 양상: <淺草文庫書目解題> 소재
필담창화집을 자료로 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권순규, 「중원지역의 문학지리와 그 의미: 達川·淸風지역을 중심으로」, 『고전문학
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권순열, 「눌재 박상 연구」,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권오영, 「19세기 후반 영남 理學의 실천적 변모: 창의대장 權世淵(1836~1899)의
위정척사이념의 실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유가문화」, 『퇴계학』 17,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
소, 2008.
- 권정원, 「고염무의 『일지록』과 조선후기의 고증학: 이덕무의 학문경향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字號를 통해 살펴본 李德懋의 삶의 지향」,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
문학회, 2008.
- 권진호, 「영남문인의 문학적 경향: 『퇴계학자료총서』를 중심으로」, 『퇴계학』 17,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_____, 「월하집(조운도), 마암집(조진도) 해제」, 『퇴계학』 17, 안동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2008.
- 권혁명, 「南孝溫의 自挽詩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聽松 成守琛 詩세계의 一考察: ‘淸隱’의 詩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
학연구』 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_____, 「湖南 詞宗 林億齡의 詩作 教育 一考: 梁應鼎과의 棠城酬唱詩」를 중심
으로」, 『한성어문학』 2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8.
- 금지아, 「계승과 초월의 접점: 중국문학과 한국한문학」, 『비교한국학』 16, 국제비
교한국학회, 2008.
- _____, 「조선 신위편 『전당근체선』 考論」, 『중국시학』 12, 북경: 인민문학출판사,
2008.

- _____, 『林惟正의 『林祭酒百家衣詩集』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49, 중국어문학 연구회, 2008.
- _____, 『申緯의 繪畫收藏과 鑑識眼』,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 _____, 『조선 후기 唐詩詩意圖에 나타난 朝鮮風 南宗文人畫의 실천과 변용』, 『중국어문학논집』 50,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_____, 『최성환 『性靈集』 考』, 『문헌』 08-3, 중국국가도서관 문헌편집위원회, 2008.
- _____, 『한국고전문학에 형상화된 ‘중국’』, 『중국과 중국학』 8, 영남대 중국연구센터, 2008.
- _____, 『신위의 <당시화>와 『전당근체선』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 해석사, 2008.
- _____, 『二十四詩品이 조선 후기 문예이론사에서 차지하는 자리』, 『중국어문학』 52, 중국어문학회, 2008.
- 김갑기, 『詩品格論으로서의 正宗 大家論』,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 김경미, 『조선 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한국 한시에 나타난 선가 지향성과 그 맥락』, 『인문과학』 4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김경숙, 『조선 후기 韓·日 서적 교류 고찰: 18세기 통신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 김광섭, 『金陵 南公輓의 晚明小品 수용 양상과 그 의미: 尺牘題跋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김금숙,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어문논집』 38, 중앙어문학회, 2008.
- 김기화, 『皇華集』 序文과 序文選述者の 文集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 _____, 『『皇華集』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9, 서지학회, 2008.
- 김남기, 『국왕의 시문과 생활: 『列聖御製』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金昌集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김남이, 『家系·師友 관계를 통해 본 15세기의 지식인 남효운』,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燕巖’이라는 고전의 형성과 그 기원 (1): 19세기~20세기 초 연암 박지

- 원이 소환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 김남형, 「迂軒 鄭彥儒의 生涯와 詩世界」,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김대현, 「17세기 東詩 文學과 孤山 尹善道の <錢塘春望>」,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孤山遺稿』 卷六 所載 東詩 <冒雪訪孤山> 考察」,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김동석, 「서울과 燕京學人의 神敎와 그 양상: 18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朝鮮時代 科體詩의 程式 考察」,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김동준, 「西溪 朴世堂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李匡師 문학의 사상적 배경과 陽明學의 흔적」, 『한국인물사연구』 10, (사)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 김동하, 「河西 金麟厚 先生의 生涯와 交遊 樣相」,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김명순, 「17세기 여성대상 산문의 남성의 여성인식과 여성의 삶」,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8.
- _____, 「반계 류형원의 시조 한역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 _____, 「吳憲常의 『玄鶴琴譜』 所載 「樂府」에 대하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한시의 가사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김명호, 「金永爵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_____,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2,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_____, 「횡계구곡과 횡계구곡시」, 『骨伐』 12, 영천향토사연구회, 2008.
- 김미선, 「詩僧 鼎鎬禪師의 시세계」,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_____, 「龍潭禪師의 詩世界」,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보경, 「비문에 새겨진 최연위의 삶, 사유, 문학」,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김상일, 「<六老山居咏>과 石屋清珙·茶山 丁若鏞의 山居詩 비교」,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 _____, 「虛應堂 普雨의 儒·佛一理論과 詩世界 연구」, 『불교학보』 4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

- 김상홍, 「茶山의 子息教育 世界: 流配地에서 보낸 書簡과 家誠를 중심으로」, 『동양학』 4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 김새미오, 『西淵聞見錄』에 보이는 淵泉 洪奭周, 『한문학보』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석희, 「김시습 기행 연작의 시세계」,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 _____, 「武陵桃源 形象化의 유형과 그 含意」,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 김성기, 「朴長遠의 문학관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한시에 나타난 화양동 공간의 이념화」,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김성룡, 「시학과 글쓰기: 剽竊과 換骨奪胎 사이」, 『작문연구』 6, 한국작문학회, 2008.
- 김성수, 「申光漢의 辭賦文學: 讚頌 修身類」,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성연, 「秋江 南孝溫의 시에 나타난 高麗의 기억」, 『석당논총』 4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 김성진, 「記錄文에 대한 想像의 接近의 일례: 장영실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詩文學의 性向」,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_____, 「『江海乘槎錄』의 書誌事項과 唱和紀俗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김세중, 「茶山의 農歌詩에 담긴 音樂的 담론」,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김소영, 「梅泉 散文의 표현형식 연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수영, 「金鑣의 <심씨를 위해 지은 시> 연구: <孔雀東南飛>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 김순희, 「竹牖 吳濤의 學問과 著述世界」,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 김승호, 「佛家 自傳의 성격과 서술유형의 고찰: 유일·초엄·범해의 자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 _____, 「僧家文學에 있어 自我表出과 그 문학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20, 불교학연구회, 2008.
- _____, 「<雁帝本紀>의 연구」, 『어문연구』 통권 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김신중, 조현범의 <강남악부> 연구: 악부시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 김연중, 「“해태”고」, 『한국한문학회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瓶窩 李衡祥의 『字學』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퇴계선생의 삶에 관한 허구와 실제」, 『퇴계학논총』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 김 영, 「근대전환기 지식인의 이국체험과 세계관의 변화: 연암 박지원의 경우」,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위당 정인보론」,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 김영봉, 「爲堂 鄭寅普의 墓道文字에 나타난 시대 의식」,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_____, 「漢子 異音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김영숙, 「詠史詩의 概念과 작품의 實相」,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詠史詩의 신라 멸망기 ‘飽石亭宴’ 史話 수용양상과 의미」,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詠史樂府의 <射琴匣> 史話 受容 樣相과 意味」, 『동아인문학』 13, 동아인문학회, 2008.
- 김영주, 「芳洲 文國鉉의 삶과 文學: 그의 학문과 시세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戰場’類 漢詩의 情緒와 類型 (1)」,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外夷竹枝詞> 소고」,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2008.
- _____, 「秋齋의 紀俗에 대한 관심과 기록: <歲時記>, <上元竹枝詞>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4, 반교어문학회, 2008.
- 김영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필사본 문집 선본서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논집』 3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8.
- _____,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小游散艸』 外 權用正 시문집 일괄」, 『고전과 해석』 4,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8.
- _____, 「유산 정학연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일고」,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 _____, 「李惟命의 『東圃齋草』와 ‘日紅堂藏’ 版心 原稿紙」,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8.
- _____, 「靑流觀 李義聲의 생애와 詩文集」,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영호, 「玄默子 洪萬宗의 文集 『覆瓿藁』에 관하여: 新發見 『覆瓿藁』의 體制와 內用을 中心으로」, 『은지논총』 19, 은지학회, 2008.
- _____, 「玄默子 洪萬宗의 『靑丘永言』 編纂에 관하여: 新發見 洪萬宗 著述 『覆瓿藁』 <梨園新譜序>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김용남, 「詩·書에서 드러나는 화양동 ‘非禮不動’의 崖刻과 煥章菴의 건립」,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회, 2008.
- 김용철, 「김일손 賦의 미적 시공간」,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김용태, 「李建昌의 <李卓吾贊>에 대하여」,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김우정, 「‘拙’을 통해 본 문학담론의 한 양상: 申滉의 用拙齋에 관한 記文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태동고전연구소, 2008.
- _____, 「玄洲 趙纘韓 散文의 研究: 17세기 초 文壇의 風情과 관련하여」,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김원준, 「『東詩』를 통해 본 지봉 비평의 一端: 名家라 칭한 白雲·益齋 牧隱·東峯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_____, 「영물시를 통해 본 원천석의 의식적 면모」, 『인문연구』 5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김유경, 「문답체를 통해 본 영조 글쓰기의 특징」,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윤섭, 「金時習 佛教詩에 관한 一研究: 禪的 意趣의 諸樣相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雪峯 金時習 佛教詩에 대한 一考察: 無生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5-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김윤조, 「18세기 후반 韓中 통합 詩選集의 출현과 『玲瓏集』」,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論語 學而篇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홍한주의 일기와 『지수염필』 저작」,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은정, 『2007년도 한문학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 _____, 「宣祖와 駙馬의 시문수창 연구」,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息庵 金錫胄의 詩文學 연구」,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春沼子 申最의 詩文學 연구」,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肅宗講學廳日記』를 통해 본 元子 보양 및 교육의 실상과 의미」, 『규장각』 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_____, 『현종강서원일기』 왕세손 보양과 교육의 실상」,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 해석사, 2008.
- 김종서, 建功湯에 반영된 英祖의 노년 건강과 심사」,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詩經講義總論〉에 보이는 茶山の 詩經 인식」,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중수, 「西溪 朴世堂의 燕行錄과 북경 체류 32일」,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 김종진, 「鄭道傳 文學觀의 몇 가지 양상들」,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 _____, 「枕肱懸辯의 글쓰기 방식과 문학치료」,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 김종철, 「『동문선』의 선시 양상」, 『동양예학』 18, 동양예학회, 2008.
- _____, 「阮堂 律文의 글쓰기에 대하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茶山 ‘贊’ 文類의 문체특성」,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한국 頌贊의 갈래분류와 문체특성」,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김주부, 「息山 李滿敷의 學問形成과 交遊樣相 一考察: 嶺南 南人係 學人을 中心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주수, 「김시습 山居集句의 미학: ‘산중 은일자의 소박한 消日의 서정’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_____, 「김시습 시에 나타난 ‘拙樸’의 문예미학」,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김시습 시의 ‘自然聲’에 의한 ‘破夢’ 모티브」,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習齋 權擘의 七言絶句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율곡 시에 나타난 ‘拙樸’의 미의식: 『정언묘선』 원자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精言妙選』 「亨字集」 시의 공간미학: ‘봄과 物外自樂을 지향하는 음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김주순, 李奎報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象村 <和歸去來辭>의 比較文學的 考察,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 김준형, 「근대전환기 야담의 전대 야담 수용 태도」,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文益成 가문의 학과적 전통과 忠君·尊周의식의 계승」,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웃음의 집대성과 『笑囊』」,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진경, 「韓國 辭賦 작품에 형상화된 개인 情懷의 樣相」,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許筠 賦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 양상: 『海東辭賦』 所載 作品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진균,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변영만의 한문산문에 드러난 근대적 사유와 그 맥락: <如是觀><人性論>을 중심으로」, 『영남학』 1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_____, 「20세기 계몽담론과 한문」,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崔益翰의 전통주의 비판과 전통 이해의 방식」,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許生 실재인물설의 전개와 <許生傳>의 근대적 재인식」, 『대동문화연구』 6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김진영, 「<報心錄>의 構造的 特性과 文學的 價値」,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학회, 2008.
- 김진영·김동건, 「牧隱 李穡의 삶과 시세계의 몇 국면」, 『국어국문학』 150, 국어국문학회, 2008.
- 김창호, 「權譯과 許筠의 交遊와 그 當代의 意味」,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曹偉 詩를 통해 본 15世紀 後半 文學 地形의 一面」,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洪貴達 交遊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官人의 形象」,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철범, 「서학의 중세철학과 근기실학계의 수용」,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小訥 盧相稷의 저술 및 문헌출간활동」,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김하라, 『欽英』 일기에 재현된 경험적 시간의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김학수, 「鄭述 문학의 창작현장과 유적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김현생, <要路院夜話記>: 시간, 공간, 그리고 담론, 『한국사상과 문화』 45,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김현옥, 「正祖의 策問에 나타난 愛民思想 研究」,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김혈조, 「고려 중엽 한문 산문의 문체」,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열하일기』 번역의 여러 문제들」,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김형술, 「一峯 趙顯期の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김홍매, 「목은 이색의 詠花詩 연구: 매화시, 국화시, 연꽃시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 김효경, 「간찰의 산문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나중면, 옛사람의 명산유람: 芝山 曹好益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제18집, 은지학회, 2008.
- _____, 「『癡居齋艸稿』 연구」, 『규장각』 3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나중선, 「良齋 田愚의 “傳”에 대한 文藝의 考察」,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良齋 田愚의 수도의식과 출처관 고찰」, 『한자한문교육』 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良齋 田愚의 <五書 五經吟>에 대한 考察」,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남권희,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 『서지학연구』 40, 서지학회, 2008.
- 남재철, 「菊圃 姜樸의 詩에 나타난 조선후기 양반 몰락의 한 실상」,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蘭阜 金炳淵의 삶과 관련된 몇 가지 眞實」,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詞腦와 羅侯」,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新羅玉笛 考證」,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이서구 한시의 회화성, 詩畫相須」,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해석사, 2008.

- 노경희, 17세기 초 문관출신 明使 接伴과 韓中 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17세기초 조선시의 중국 전파에 대한 조선 문단의 이중적 태도: 文才 과 시 욕구와 詩文 유출에 대한 경계,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 류준필, 「조선후기 문인사회의 인정 욕망과 타자(성): 燕巖 朴趾源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 류준필·이영호, 「農巖 金昌協의 論語學과 그 경학사적 위상: 「農巖雜識·內篇三」의 「論語說」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류형표, 「定法師의 <詠孤石> 詩考」,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李 鵬, 18~19세기 동아시아 漢詩圈에서 「性靈說」의 수용 양상, 『한국학논집』 4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李春姬, 「明 王世貞의 문학사상과 李彦瑱의 한시」,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燕行路程에 관한 詩와 燕行心理의 변화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5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문석윤, 「定本 『退溪全書』 凡例案: 書簡 및 散文 자료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24, 퇴계학연구원, 2008.
- 문준혜, 「朴瑄壽와 『說文解字翼徵』」, 『규장각』 3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민영대, 「『崔陟傳』에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와 작자의 의도」,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문학회, 2008.
- 박경남, 「俞漢雋, 朴胤源의 도문분리 논쟁과 俞漢雋의 各道其道論」,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趙龜命 道文分離論의 변화와 독자적 인식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 박경주, 「詩歌文學史에서 漢文詩歌의 위상과 의미」,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박기석, 「『열하일기』에 나타난 연암의 중국문화 인식」, 『문학치료연구』 8,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박기용, 「망우당 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표출 양상과 그 인식」,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 박노현, 「李達의 詩研究」,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박동욱, 「금대 이가환 유배 한시 연구: 金化 유배 시기를 중심으로」, 『동방학』 1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 _____, 「서세동점기 한시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의 형상」,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_____, 「李左薰 한시에 나타난 비애 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35,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박동주, 「위백규의 原體散文 <原事物> 考」,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박명희, 「石亭 李定稷 題畫詩의 두 층위」,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石亭 李定稷의 '平淡' 논의와 시적 實踐」, 『호남문화연구』 42, 호남학연구원, 2008.
- _____, 「文谷 金壽恒의 시문에 구현된 靈巖 유배지에서의 생활」, 『호남문화연구』 43, 호남학연구원, 2008.
- 박무영,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_____, 「19세기 한문학의 계열과 논점: 沆瀣 洪吉周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경전 패러디와 기호 조작의 세계: 洪吉周 작, <阜津經傳>과 <甘誓>, <武成>의 작품론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박문열, 「백암 김득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38,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8.
- _____, 「鶴山 辛敦復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1, 서지학회, 2008.
- 박배식, 「송강의 시에 나타난 표현론적 세계」,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박명익, 「<侏仰亭三十詠>과 自然景物에 대한 美感: 金麟厚·高敬命·林億齡·朴淳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박성규, 「高麗箭期 文學思想 研究: 金富軾의 문학사상을 中心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한국한문학 연구의 발전적 전망」,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박수필, 「18세기 양응수의 독서법에 나타난 독서 양상과 그 의미」,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고전에서의 유추와 실학적 유추의 탐구 의미 고찰」,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2008.

- 박수진, 「조선시대 天冠山의 공간 인식 양상: 遊山文學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 박수천, 「定齋 朴泰輔의 시문학」,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洪世泰 시문학의 主體慾望과 他者葛藤」,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 박연호, 「중원의 누정문학: 괴산지역의 누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박영미, 「한시에 표상된 근대의 풍경: 정만조의 일본 기행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박영민, 「19세기 여성화가 雲楚의 회화활동과 그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_____, 「李鳳仙, 관기제도 해체기 기생의 재생산과 사회적 정체성」,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박영호, 「年譜를 통해 본 貞齋 朴宜中의 삶과 文學」,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박원식, 「〈和歸去來辭〉의 性理學的 意識樣相」, 『어문연구』 통권 1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_____, 「佛敎 〈和歸去來辭〉에 관한 考察: 韓中佛敎文學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박용국, 「조선 초·중기 名山文化로서 智異山의 正體性」,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박용만, 「宛委閣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32, 서지학회, 2008.
- 박우훈, 「駢儷文 研究의 現況」,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雲臯 徐有英의 『玲瓏詩集』 研究」, 『동아인문학』 14, 동아인문학회, 2008.
- 박은정, 「金柱臣의 古文觀 연구」,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 _____, 「石亭 李定稷 文論 再考」,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朝鮮文論에서 韓愈 古文論 用語의 含意 연구」, 『어문논집』 57, 민족어문학회, 2008.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삼입 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_____, 「16세기 湖南 漢詩의 風流論的 考察」, 『민족문화연구』 4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박종훈, 「楚亭 朴齊家 詩에 나타난 자부심과 내적 갈등 양상: 檢書官 재임 기간의 작품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19, 은지학회, 2008.
- _____, 「楚亭 朴齊家 初期 詩 考察: 『韓客巾衍集』의 評語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화』 35,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_____, 「楚亭 朴齊家の 美意識과 詩論」, 『동방학』 1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 _____, 「楚亭 朴齊家の 연경잡절 일고」, 『한문학논집』 27, 근역한문학회, 2008.
- _____, 「楚亭 朴齊家の 연행시 고찰」, 『인문학연구』 9,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 _____, 「조선후기 왕사정 신운 수용 양상」, 『태동고전연구』 24, 태동고전연구소, 2008.
- 박준원, 「『감담일기(坎窞日記)』 연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萬蟬窩贅藁』 연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박현숙, 「朝鮮後期 野談集 所載 奇異談의 特性 考察」, 『어문연구』 통권 1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박혜숙,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화폐단위 번역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 박효경, 「간찰의 산문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박희병, 「『鐘北小選』의 評語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 배기표, 「『姜秋錦奉別詩幅』에 대한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5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백승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간찰첩·시첩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 _____, 「西坡 吳道一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백원철, 「願齋 黃胤錫 漢詩 實學文學的 照明」,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백진우, 「英祖朝 執權 老論系 文人의 自己檢閱 樣相에 대하여: 黃景源, 南有容, 李天輔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李天輔의 史論體 산문에 대하여」,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변구일, 「張維의 贈序類 散文 研究」, 『고전과 해석』 4,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 변종현, 「金時習 漢詩 研究」,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부유섭, 「松谷 李瑞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서은아, 「〈열녀함양박씨전〉의 박씨와 『삼강행실도: 열녀편』의 관계를 통해 본 열녀제작의 심리적 요인」, 『고전문학과 교육』 1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_____, 「『열하일기』 내 <장대기>, <강녀묘기>를 대상으로 살펴 본 독서행위와 문학치료의 관계」, 『문학치료연구』 8,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_____, 「자기서사에 따른 사물의 의미변용과 여행 체험」,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서정화, 고려 무신집권기 산문의 일고찰: 林椿의 散文 세계와 문학사적 성취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4,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성범중, 「구충당 이의립의 시가」, 『울산문학』 43, 울산문인협회, 2008.
- _____, 「亭子和 園林을 통한 문학적 교유와 소통: 울산 소재 集淸亭의 경우를 예로 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6.
- _____, 「최남복의 <백련구곡도가>와 송찬규의 <반계구곡음>의 세계」, 『울산문학』 44, 울산문인협회, 2008.
- _____, 「集淸亭詩集 研究」,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손오규, 「孫昭의 <文章軌範跋>과 古文復古」,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 손유경,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研究」,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손찬식, 「韓國漢文學에 表象된 고양이의 性格」, 『인문학연구』 35-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손혜리, 「18~19세기 초반 문인들의 서화감상과 비평에 관한 연구: 成海應의 「書畫雜誌」와 南公轍의 「書畫跋尾」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 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 _____, 「靑城 成大中 記文 研究」,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송재소, 「다산학단 연구 서설」, 『다산학』 12,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 송재용, 「『眉巖日記』의 글쓰기 방식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30, 동양고전학회, 2008.
- 송혁기, 「疏筭類 산문의 立意와 修辭 양상 일고: 許積 논척과 관련한 소차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2008.
- _____, 「巍巖 李東 散文 一考」,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신경훈, 「경허 시에 표현된 심체와 대경의 관계」, 『사림어문연구』 18, 사림어문학회, 2008.

- 신두환, 「매월당의 <山居集句>에 나타난 미의식」,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梅月堂의 漢詩에 나타난 方外생활의 美의식」,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식산 이만부의 <金剛山記>에 나타난 문예미학」,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_____, 「息山 李萬敷의 性理學과 文藝美學」,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퇴계의 한시에 나타난 즐박의 미」, 『한자한문교육』 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신로사, 「金善臣의 生涯와 그의 著作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제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 신상구·이창엽, 「누정 건축 공간과 누정시 연구 방법론 모색: 경주 獨樂堂 溪亭과 회재의 <林居十五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 신상필, 「1910년대 한문학 인식의 층위: 『매일신보』 사설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신승운, 「承政院日記의 翻譯과 定本化 問題」,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_____, 「한국문집정리의 측면에서 본 『退溪學資料叢書』 간행의 의미」, 『퇴계학』 17,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신영주, 「월사 이정구의 갑계 조직과 『갑계첩』」,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전통 시대 한문 학습법에 관한 일고찰: 영조의 장헌세자 교육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한문 문헌에 대한 교감의 전통과 그 유형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신은경, 「散韻 혼합단론의 유형과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_____, 「詩話와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의 비교 연구: 『破閑集』과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를 중심으로」, 『동양학』 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 _____, 「秋齋 趙秀三의 <外夷竹枝詞> 연구」,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往五天竺國傳』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학회, 2008.

- 신익철,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원평도 문학의 수용 양상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李達이 鄭經世에게 준 餞別詩 한 수」,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신장섭, 「<射琴匣> 설화의 詠史樂府 전승과 그 의미」, 『어문연구』 통권 1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_____, 「歲時紀俗詩를 통한 조선 후기 歲時風俗의 의미와 양상」, 『비교문학』 46, 한국비교문학회, 2008.
- _____, 「李奎報와 蘇軾의 賦文學 比較 試攷」,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 신태영, 「雪溪 文勵의 삶과 시세계: 미완의 삶, 길 위의 시」,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濯纓 金駟孫의 賦에 대한 한 연구: 道友와 憂國哀情」,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濯纓 金駟孫의 不屈의 삶과 賦」,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심경호, 「17세기 초반 지식사의 한 단면: 지천 최명길과 월사·상촌·계곡 태당」,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금석문과 한문학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石亭 李定稷과 『시경』」,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실학 개념의 재정립: 탐구학으로서의 실학」, 『인간, 환경, 미래』 1,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8.
- _____, 「위당 정인보와 강화학파」,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이두식 변역한문의 역사적 실상과 연구과제」, 『어문논집』 57, 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지식인과 顧炎武」,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지천 최명길의 문학과 사상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추사 간찰의 해학미와 우아미」, 『추사연구』 6, 추사연구회, 2008.
- _____, 「추사 김정희의 書牘에 담긴 사유양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일고찰」,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한문고전 번역에서 학술번역의 개념과 그 역할」, 『한자한문연구』 4,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8.
- _____, 「한학기초학사 서술과 서발문 자료의 활용」,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안대회, 「19세기 희곡 『北廂記』 연구」,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안동준, 「요동선인 정영위의 문학적 전승과 그 의미」, 『도교문화연구』 28,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 안말숙, 『益齋集』 所載 忠君·愛民詩 研究,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안세현, 「17세기 전반 樓亭記 창작의 일양상: 申滉의 ‘用拙齋’에 붙인 記文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紫巖 李民憲의 『柵中日錄』과 『建州聞見錄』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蔡壽 樓亭記 研究」,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안순태, 「宜齋 南周獻의 中國 詩史와 杜詩에 대한 인식」,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李玄錫의 生涯와 漢詩」,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안영길, 「申維翰의 문학사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 양지욱·구사회, 「대한제국기 주불공사 石下 金晚秀의 <일기> 자료에 대하여」,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 양태순, 「신흥의 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연구: 연정을 주제로 한 시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양희찬, 「禪詩와 時調의 交涉 片鱗」,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엄경흠, 「高麗後期 對中國使臣 送詩에 表現된 外交認識의 變化와 그 意味」,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엄선용, 「『三國遺事』 「孝善」篇 分析 研究」,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여운필, 「高麗時代의 漢詩와 國文詩歌」,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東文選』 시문의 출처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 _____, 「明齋 尹拯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오용섭, 「『청장관전서』 定稿本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39, 서지학회, 2008.
- 우인수, 「紫巖 李民憲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원주용, 「雙梅堂 李詹의 散文에 관한 考察」,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雙梅堂 李詹의 意識의 變遷에 관한 考察」,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麗末鮮初 文人들의 글쓰기 양상: 牧隱·三峰·陽村의 散文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유권석, 「滄溟 南翎의 畵 擬人化 假傳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5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유영봉, 「高麗前期의 '處士榜'을 통해 본 隱逸의 추구 경향」,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유영옥, 「鄉儒 黃胤錫의 泮村 寄食과 卜妾」,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유육례, 「정극인 한시의 미학」,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유재운, 「漢文의 文章修辭에 나타난 調和의 原理 考察」,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유호선, 「조선중기 승가의 記文 연구」, 『청람어문교육』 3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 유호진, 「15세기 詩壇의 動向과 成侃의 古詩 創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윤경희, 金昌業의 燕行文學에 나타난 瀋陽」,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 윤인현, 「南冥의 문학과 교육을 통해 본 實踐躬行과 因人施教」, 『남명학연구』 2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南冥의 출처와 문학을 통해 본 선비정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 _____, 「『東人詩話』로 살펴본 徐居正의 格律論的 漢詩批評」,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_____, 「선비精神에 비추어 본 鄭仁弘의 著述과 生涯」,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윤재환, 「詩論과 詩세계의 相關關係: 星湖와 茶山の 田家詩를 中心으로」, 『한민족어문학』 52, 한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新資料 『太湖詩藁』를 통해 본 李元鎮의 詩世界: 資料 소개와 詩世界の 概略을 中心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朝鮮 後期 流配 經驗의 詩의 形象化: 梅山 李夏鎭의 雲陽錄을 中心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윤주필, 「한국 우연산문에 나타난 자연물 모방의 경향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윤지훈, 「雪橋 安錫徽의 對日認識과 <姜沆傳>」, 『한문고전연구』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_____, 「雪橋 安錫徽의 『識聞』에 대한 一考察」,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朝鮮後期 文人의 『史記』 認識과 評價에 관한 一考: 『項羽本紀』에 대한 諸家批評을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朝鮮後期 閭巷人の 教育活動과 그 成果: 浣巖 鄭來僑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삼교예학록』을 통해 본 安錫徹의 散文批評과 古文作法: 篇章構成과 字句運用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윤채근, 「조선 후기 남성혜절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 情念 담론에서 利益 담론으로」, 『한국한문학회』 42, 한국한문학회, 2008.
- 윤현숙, 「家系記錄의 체계와 家乘의 문학성 小考: 은진 송씨 家 『德恩家乘』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윤호진, 「丹坡 河啓龍의 學行과 詩世界」, 『남명학연구』 2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醒狂 文劫과 梅村 文弘運의 生涯와 文學」,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鄭之升 詩의 唐詩의 特性에 대하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叢桂堂 鄭之升과 그의 漢詩」,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강엽, 「〈동명왕편〉 소개 兩價物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이강욱, 「다산 정약용 시의 시각적 상상력과 청각적 상상력: 이학규 시의 경우와 대비하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서포 김만중의 詩文에 나타나는 구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_____, 「조선 후기 야담의 욕망과 대안적 근대」,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 이경미, 「鶴陰 沈遠悅 記文의 서술방식과 역사인식」,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경아, 「茶山 寓話詩의 擴張과 轉移: <烏鰂魚行>과 <狸奴行>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이경하, 「『內訓』과 『小學·烈女·女教 明鑑』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이관성, 「홍석모의 <皇城雜詠> 小考: 조선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연경의 시적 형상화」, 『어문논집』 58, 민족어문학회, 2008.
- 이구의, 「藍溪 表治沫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龍巖 朴雲의 <次悶己> 賦에 나타난 志向意識」, 『한민족어문학』 52, 한민족어문학회, 2008.
- _____, 「頤齋 曹友仁 <卽事>詩에 나타난 外物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4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紫巖 李民奭의 詩文學 研究」,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紫巖 이민환의 <義牛塚>賦 攷」,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崔致遠 문학의 창작 현장과 遺跡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국진, 「이학규 영물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군선, 「海居 洪顯周의 書畫에 대한 관심과 收藏」,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埴叟 鄭萬陽·旆叟 鄭葵陽의 科制改革案」,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한국에서 한문의 수용과 변용」, 『중국문학연구』 36, 한국중문학회, 2008.
- 이권희, 「玉所 權燮 漢詩의 閭巷文學的 性格」,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2008.
- 이규운, 「許筠의 文學論 研究: <文說>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이대형, 「<李花實傳>의 특징과 의의」,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동재, 「梅溪 曹偉 편집 『遊松都錄』 소개 한시연구」,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省齋 柳重教의 詩文學 一考」, 『한자한문교육』 20,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이동환, 「한문학과 그 창작 현장」,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래중, 「청과 이륙의 생애와 문학」, 『국학논총』 7, 대구한의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이문규, 「許生의 인물형상고」, 『선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이민희, 「강화 고진문학사 연구 및 서술을 위한 제언」, 『인천학연구』 8, 인천학연구원, 2008.
- _____, 「조선과 중국의 서적중개상과 서적 유통문화 연구」, 『동방학지』 14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 이복규, 「최부의 <표해록>에 대한 두 가지 의문」,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이상봉, 「황윤석 詩論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이상주, 「現存 最初의 九曲詩 唱酬集 『德山九曲詩』」,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華陽九曲·仙遊九曲의 完成過程과 華陽九曲圖」,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상필, 「南冥 曹植 遺蹟 小攷 (1): 山海亭과 新山書院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滄洲 河愷의 生涯와 南冥學派 內에서의 역할」, 『남명학연구』 2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이성민, 「『大東學會月報』 所載 漢詩에 대한 일고찰」, 『퇴계학논총』 14, 퇴계학부 산연구원, 2008.
- 이성혜, 「龜巖 李楨의 詩: 진지한 학문하기」,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이수진, 「秋齋 趙秀三의 <次耕織圖韻>시 연구」,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이수환, 「李彦迪 문학의 창작 현장과 遺蹟: 良佐洞과 玉山別業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승수, 「문헌기록에 나타난 지도 인식의 양상과 변모: 상상력의 작용을 고려하여」, 『한국언어문화』 37,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_____, 「박문수 전승의 역사적 기반 탐색」,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 _____, 「佛家 漢詩에 내재된 그리움과 변민」,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 이연순, 「『眉巖日記』의 저술배경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32, 동양고전학회, 2008.
- 이원걸, 「경옥 이보의 전가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원형, 「丁若鏞의 神形妙合의 藝術論」,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이월영, 「『布衣交集』 研究」,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 이의강, 「頌祝詩의 淵源 및 그 전형 壽宴詩」,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澹山 河祐植의 生涯와 思想」, 『남명학연구』 25, 경남문화연구원, 2008.
- 이장우·장세후, 「退溪詩 譯解(68)」, 『퇴계학보』 124, 퇴계학연구원, 2008.
- 이재숙, 「容齋 李荇의 詩風에 대한 一考」,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이재일, 『梅花詩에 나타난 李滉의 意識指向』,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이정화, 「퇴계 이황의 매화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이정훈, 「『三國遺事』 義解의 성격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이종묵, 「권상하의 삶과 시, 그리고 그 자취」,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기묘사림과 충주의 문화 공간」,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_____, 「눈 속의 매화를 즐기는 법」,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버클리대학 소장 이서구의 시집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변계량외의 인재양성 정책」, 『진단학보』 105, 진단학회, 2008.
- _____, 「尋眞洞 長水寺와 玉溪 盧禎」,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아내가 쓴 남편의 묘지명」,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四宜堂」,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 _____, 「<팔선와유도>와 남승도 놀이」, 『문헌과 해석』 43, 문헌과해석사, 2008.
- 이종문, 「高麗時代까지의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資料整理 果題」,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東人之文四六』 所載 12篇 作品의 作者에 對한 考察」,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노계 박인로 문학의 창작 공간과 유적 관련 몇 가지 탐색」,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이지양, 「고전문학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문화적 관점의 고전문학연구, 그 본질과 전망」,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 _____, 「李鈺과 馮夢龍의 산문에서 通俗性과 眞情의 관계: 여성의 烈節을 소재로 한 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호남선비 황윤석이 본 ‘호남차별’ 문제」,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황윤석, 사환을 위해 떠든 시간의 내면풍경」,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
한문학연구학회, 2008.
- 이창희, 「옥소 권섭의 기속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 이철희, 「연암 박지원의 <綠鸚鵡經序>에 담겨있는 비평적 의미(1)」,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社會詩에서 다산과 치원의 차이」, 『다산학』 12,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
단, 2008.
- 이택동, 「후대 詩文에 투영된 退·栗 형상」,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이학당, 「筆談을 통해 본 『熱河日記』의 藝術的 描寫性」, 『한문학보』 18, 우리한문
학회, 2008.
- _____, 「『熱河日記』 <虎叱>의 創作과 筆談의 意味」,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
회, 2008.
- 이한길, 「김극기의 <경포대> 한시 연구」, 『동방학』 1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
소, 2008.
- _____, 「율곡의 경혼 심장원 관련 한시 고찰 II」, 『율곡사상연구』 16, 율곡학회,
2008.
- 이향배, 「梧堂 李象秀의 散文批評論 研究」,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8.
- 이현식, 「『열하일기』의 「제일장관」, 청나라 중화론과 청나라 문화 수용론」, 『동방
학지』 14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8.
- 이현일, 「申緯 小樂府 再論」,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申緯의 詩人意識과 技法으로서의 詩學」,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
학회, 2008.
- _____, 「雨村 南尙教 詩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紫霞에 대한 몇 가지 일화」,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 해석사, 2008.
- 이혜순, 「18세기말 동소지성의 해외체험, 성찰의 방향과 그 의미: 박지원의 열하일
기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2,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08.
- _____, 「신유한, 해유록」, 『한국사 시민강좌』 42, 일조각, 2008.
- 이홍식, 「19세기 초 沆瀣 洪吉周의 글쓰기 경향」,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沆瀣 洪吉周의 交遊 樣相과 文學 志向」, 『어문연구』 통권 137,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08.
- _____, 「沆瀣 洪吉周의 文章中原 探索」,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홍길주의 눈에 비친 대산 김매순」,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 해석사, 2008.
- 이효숙, 「17~18세기 노론계 문인의 소옹의 시문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25, 우리문학회, 2008.
- 이희목, 「大訥 盧相益의 亡命生活과 遺民詩」,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愛國啓蒙期 漢詩에 나타난 民族的 傳統」,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임명호, 「朝鮮後期 漢文學의 崇雅·貶俗 意識」,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임완혁, 「無名子 尹櫛의 散文世界」,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朝鮮後期 敍事散文에 나타난 虛構의 樣相과 意味」,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임유경, 「『서북학회월보』의 『인물고』 구성과 서술의식」,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임준철, 「對淸使行의 종결과 마지막 연행록」,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_____, 「朝鮮中期 漢詩에서의 ‘奇」」, 『어문연구』 통권 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임지영, 「朝鮮 正祖朝에 購入된 中國本の 書誌學的 研究」, 『서지학보』 32, 서지학회, 2008.
- 임채명, 「朝鮮 文士의 詩文을 통해 본 富士山 認識의 變貌 樣相: 4차~11차까지의 通信使行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朝日 文士의 朝鮮 山과 日本 富士山 優劣 比較 研究: 通信使行 시기의 文學적 기록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46, 한국비교문학회, 2008.
- 임형택, 「19세기 문학사가 제기한 문제점들」,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_____, 「21세기 현실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방향 재론」,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 장경남, 「임진왜란기 포로 체험 문학과 가족애」, 『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장도규, 「퇴계 이황의 시인식과 달관시」,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장시광,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상인으로서의 면모」, 『운지논총』 20, 운지학회, 2008.

- 장영희, 「〈結芳緣二八娘子〉의 대립구도와 그 의미」,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역옹패설』의 인물기록과 그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장유승, 朴世采의 漢詩를 통해 본 17세기 山林의 현실 인식」,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장재호, 「紫巖 李民憲의 生涯와 著述」,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전병철, 「『淸涼志』를 통해 본 退溪 李滉과 淸涼山」,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1: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전재강, 「남명 시에 나타난 부정 대상의 유형과 성격」, 『우리말글』 44, 우리말글학회, 2008.
- _____, 「남명문학 연구의 문제와 전망」, 『우리말글』 42, 우리말글학회, 2008.
- _____, 「退溪詩에 나타난 書堂과 書院 心象의 존재 양상」,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정경주, 조선조 禮樂文明과 점필재 金宗直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정경훈, 「尤庵 宋時烈 散文의 문예적 면모」, 『한국사상과 문화』 4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重庵 金平默의 文學觀 形成과 文學認識」,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정길수, 「〈夜出古北口記〉의 비평적 접근」, 『대동문화연구』 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정 민, 「18세기 한문학 연구와 문화사적 시야」,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6.
- _____, 「다산과 은봉의 교유와 만일암지」, 『문헌과 해석』 44,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見月帖』」, 『한국학논집』 4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_____, 「〈茶山與黃裳書簡帖〉의 내용과 자료가치」, 『다산학』 13,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 _____, 「다산의 선문답」,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목월시의 의경과 한시적 미감」, 『한국언어문화』 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_____, 「<상찬계시말>을 통해 본 양제해 모변사건의 진실」, 『한국실학연구』 15,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 24수」,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해석사, 2008.
- _____, 尤庵 先生 <首尾吟> 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 4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이유원의 차시와 차생활」, 『문헌과 해석』 43, 문헌과해석사, 2008.
- 정병현, 「김시습의 영재적 삶과 문학」,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회, 2008.
- 정석태, 『퇴계집』의 간행 경위와 그 체제」, 『퇴계학논집』 2,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_____, 「溪上 일대의 퇴계 관련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위치 고증」,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정석태·문석운, 「定本 『退溪全書』 凡例案 詩 자료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24, 퇴계학연구원, 2008.
- 정선모, 「白居易詩文集東傳考: “鷄林賈人求詩說”의 眞僞 문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蘇軾文學初期受容樣相考」,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形成期の 韓國漢文學 연구: 對中國外交와 五言詩의 出現에 대하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정선희, 「朝鮮後期 鄉村 文人 陸台林의 題畫詩 研究」, 『어문연구』 통권 1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정숙인, 「『水村漫錄』의 風格批評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24, 우리문학회, 2008.
- 정순희, 「박지원 산문의 문체적 특성 一考: 어휘와 주제의 관련 양상을 통해」,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정시열, 「桐溪 鄭蘊의 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_____, 「明庵 鄭栻의 漢詩 研究」, 『동양고전연구』 33, 동양고전학회, 2008.
- _____, 「芝山 曹好益의 漢詩 研究」,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정연정, 「순천대 소장 『이륜행실도』의 간행 시기 고찰」,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 정요일, 「天機의 概念과 天機論의 意義」,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訓民正音』 <序文>의 ‘者’ ‘놈’의 意味와 관련한 古典 再檢討의 必要性 論議」, 『어문연구』 통권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정용수, 「〈동상기〉의 성격과 조선후기 백화투 문체」,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정우탁, 「남명학과의 문학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이중구조와 의미지향」, 『남명학연구원총서』 2, 남명학연구원, 2008.
- _____, 「習靜齋 河應運의 主靜的 世界觀과 그 自然形象」, 『남명학연구』 25,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整漢 孫起陽의 文學認識과 文學的 形象化 方式」, 『어문학』 102, 한국어문학회, 2008.
- 정우봉, 「澹軒 李夏坤의 題跋文 연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미발굴 한문회곡 <百祥樓記>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序跋類를 통해 본 조선시대 逸失本 文章選集의 편찬 현황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_____, 「조선후기 한문학에 있어 <不亦快哉>의 변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정은진, 「18세기 소론계 인물 善息齋 鄭持淳 研究 (1): 生涯와 交遊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18세기 소론계 인물 善息齋 鄭持淳 研究 (2): ‘吾心’思想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표암 강세황 한시의 형식과 표현」,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정일남, 「文學에 비친 松江 이미지 一考」,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박지원 序文 연구: 『열하일기』 序文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열하일기』 「양엽기 일고」, 『동방한문학』 35, 동방한문학회, 2008.
- 정재철, 「세종 대 한유 문집의 편찬과 그 의미: 조선본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의 내용 분석」,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五百家註音辨昌黎先生集』 연구」, 『한문학논집』 27, 근역한문학회, 2008.
- 정종대, 「李崇仁의 漢詩에 대하여」, 『선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정출현, 「15세기 鬼神談論과 幽冥敘事의 관련 양상: 김시습의 <귀신론>과 <남염부주지>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국학과의 ‘조선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정후수, 「李尙迪과 <歲寒圖> 관람 淸朝 인사 19인의 교유」, 『동양고전연구』 30, 동양고전학회, 2008.
- 정 훈, 「남원 광한루의 누정제영시 연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문학회, 2008.

- 정훈식·남송우,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所在 見聞錄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 조경은, 「鄭知常의 <送人>을 둘러싼 解釋的 多樣性的 問題」, 『어문연구』 통권 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조규익, 「使行文學 초기 자료의 쓰기 관습과 내용적 성격: 인제 최현의 『조천일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 _____, 「인간의 냄새가 스며든 仙趣의 서정: 無衣子 慧謙의 시와 求道 미학」, 『불교문예』 43, 불교문예출판부, 2008.
- _____, 「조선조 사행록 텍스트의 본질」, 『한국문학과 예술』 2, 한국문예연구소, 2008.
- _____, 「찰나와 영원의 경계, 그 깨달음의 미학: 나옹화상의 깨달음과 미학」, 『불교문예』 42, 불교문예출판부, 2008.
- _____, 「天險의 金城湯池 그 서정적 공간: 조선통신사 노정 하코네[箱根]의 이미지」,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 조기영, 「율곡의 시문학관(1)」, 『율곡사상연구』 16, 율곡학회, 2008.
- _____, 「율곡의 시문학관(2)」, 『율곡사상연구』 17, 율곡학회, 2008.
- _____, 「『정언묘선』의 풍격과 栗谷의 詩道」, 『동양고전연구』 31, 동양고전학회, 2008.
- 조성덕, 「한국문집의 이체자 자형연구(1): 『한국문집총간』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조성진, 「신희의 악부 인식과 민족시가의 재인식: 신희의 樂府體詩와 <放翁詩餘序> 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5, 한국시가학회, 2008.
- 조영임, 「西溪 李得胤과 그의 詩世界」,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조용호, 「최영년의 『詩金剛』과 1920년대 漢詩界」,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조용희, 「英祖 御製와 ‘風泉’, 그리고 ‘風泉’의 典故化 양상」,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조창록, 「사대부의 생활이상과 『임원경제지』: 산림의 處士에서 임원의 生活人으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徐有矩·徐宇輔 父子의 放廢期 행적과 蘭湖 생활: 서우보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成琬의 『翠虛集』과 對明義理의 詩」,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玉洞 文益成의 생애와 시세계: 관직 생활과 관련된 시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_____, 「학산 서호수론」, 『민족문화』 31, 한국고전번역원, 2008.

- 조태성, 「한국 선시의 갈래와 禪趣의 문제」, 『고시가연구』 2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조혜숙, 「〈關東別曲〉 한역의 추이와 그 시가사적 의미」,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한국어문학연구』 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 _____, 「고전문학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 여성주의와 고전문학연구의 접점과 방향」, 『민족문학사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 조현우, 「조선 후기 通信使行에 나타난 ‘中間者’와 ‘他者’: 癸未使行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진재교, 「근대전환기와 한시의 대응: 근대 인쇄 매체와 한시와의 상관성」,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 _____,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壬辰倭亂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沈大允의 ‘二南’과 ‘關雎’의 說詩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조선조 후기 문예공간에서 성적 욕망의 빛과 그늘: 예교, 금기와 위반의 拮抗과 그 辨證法」,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_____, 「海陽 羅烈의 文藝 活動과 詩世界」,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한문고전 번역의 특수성의 안과 밖」, 『민족문화』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 천기철, 「이재 황윤석의 서학 인식과 특징」,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최경환, 「郭汾陽 연구: 고전문화 속의 인물 읽기」,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실경산수도시와 화면상의 이미지의 재산출 방향: 이용구의 <금시당십이경> 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최기숙, 「조선후기 사대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문화: 耳溪 洪良浩의 ‘記’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최병철, 「晩洲 洪錫箕의 시세계」,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魏伯珪의 漢詩·時調 歌辭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4, 반교어문학회, 2008.
- 최석기, 「조선후기 嶺南의 經學研究와 疏通의 摸索」,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

- 한문학회, 2008.
- _____, 「士農窩 河益範의 삶과 문학」, 『남명학연구』 25, 경남문화연구원, 2008.
- 최 식, 「대산 김매순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현명의 <대산김공유사>를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45, 문헌과 해석사, 2008.
- _____, 「沈澐 洪吉周의 讀書趣向과 『書林日緯』」,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 최원경, 「기호로 읽는 『孰遂念』」,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최원석, 「韓國의 名山文化和 朝鮮時代 儒學 知識人の 展開」, 『남명학연구』 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최유진, 「震溟 權擡의 회화관과 문학론 비교 고찰」,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최재남, 「조선 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_____, 「창계 임영의 삶과 시 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2, 한국한시학회, 2008.
- 최정신, 「『삼국유사』의 여성과 불교: 『일본영이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최종호, 「『退溪集』 刊行 과정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役割: 退溪學派 내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位相 究明의 一端」,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 최준하, 「李奎報의 '傳'文學 考察」, 『인문학연구』 통권 7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최친집, 「<양반전>의 진 가 확인형 소설로서의 면모」, 『영남학』 14,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 _____, 「<천군전의 심성론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15, 경북대 동양고전연구소, 2008.
- _____, 「<虎叱> 창작의 淵源과 背景」, 『어문논총』 48,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 하강진, 「진주 축석루 제영시의 제재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 하경숙, 「백광홍의 현실인식과 문학세계」, 『은지논총』 18, 은지학회, 2008.
- 하정승, 「金克己 시에 나타난 감각적 意象과 悲慨美」,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安軸 시의 표현 양식과 미적 특징」,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염정시의 면모와 미적 특징」, 『동방한문학』 37, 동방한문학회, 2008.
- _____, 「정몽주 시에 나타난 표현 양식과 미적 특징」, 『포은학연구』 2, 포은학회,

2008.

- 하지영, 「숙수넝 공간에서의 ‘틈’과 홍길주의 念」,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학근봉, 「谿谷 張維 文學에 나타난 『莊子』 寓言 受容樣相과 意味」,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한계호, 「蓀谷 李達의 學唐에 대한 試考」,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한문학분과, 「한문학 2007년 연구 동향」, 『고전과 해석』 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 한석수, 「華陽洞의 文學: 尤庵 宋時烈과 그 弟子들의 漢詩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 한국고전문학회, 2008.
- 한영규, 「南秉哲 懷人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_____, 「소품문 글쓰기와 ‘林園經濟’: 李鈺 『白雲筆』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19세기 조선의 한시」, 『한국실학연구』 16, 한국실학학회, 2008.
- _____, 「한말 일제하 羅州儒林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한말 일제하 나주지역의 사회변동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한창훈, 「朝鮮 後期 漢詩에 나타난 事實性에 대한 一考察: <田間紀事>와 <己庚紀事>를 대상으로」, 『국어문학』 44, 국어문학회, 2008.
- 한태문, 「申維翰의 『海游錄』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_____, 「通信使 왕래를 통한 演戲 교류」, 『지역과 역사』 23, 부경역사연구소, 2008.
- 허경진, 「『谷靑私藁』를 통해 본 의원 이현양의 글쓰기」, 『의사학』 제17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08.
- _____, 「백낙천 문집의 수입과 한국판본」,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중국조선족문학 최초의 작품과 그 창작 배경에 대하여」,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倉可樓外史』의 편찬 의도와 내용에 대하여」, 『인문과학』 41,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 허경진·유정, 「晚淸時期的 韓中文人詩社 龍喜社 小攷」, 『동아인문학』 14, 동아인문학회, 2008.
- 허경진·천금매, 홍대용 집안에서 편집한 <燕杭詩牘>」,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 허권수, 「倂宇 郭鍾錫의 생애와 학문」, 『한국인물사연구』 10, 한국인물사연구소,

- 2008.
- _____, 淵民 李家源先生の 漢文學 成就過程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_____, 「燕巖의 北京에 대한 認識의 한계」,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홍경표, 「위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에 대하여」, 『향토문학연구』 11, 향토문학연구회, 2008.
- 홍선주, 「靑詞의 성립과정과 문예적 특징」, 『동방학』 1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 홍인숙, 「근대계몽기 개신 유학자들의 성 담론과 그 의의: 개가'론'/열녀'담'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황만기, 「『남사록』에 나타난 淸陰 金尙憲의 作家意識」,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황병호, 「朝鮮後期 驪州 李氏家の 書畫收藏 研究」, 『동양한문학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 황수연, 「自決을 통해 본 옥망의 문제: <열녀홍씨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황수정, 「西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_____,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황아영, 「李鈺 遊記의 美的 特性」, 『한문고전연구』 16,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황위주, 「낙동강 연안의 유람과 창작 공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朝鮮時代 古文書의 漢文文體의 特徵」,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 _____, 「해외 고문헌 조사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 황의열, 「『記言』의 編輯 體制와 眉叟 許穆의 文體意識」,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황재문, 「『環珍吟』의 성격과 표현방식」, 『한국한시연구』 16, 한국한시학회, 2008.
- 金相洪, 「朝鮮後期流配客의 子息教育考」, 『中韓交流與傳統文化研究』, 延邊大學出版社, 2008.
- 劉廣銘·金英今, 「朝鮮人視域中的乾隆皇帝: 以『熱河日記』爲中心」, 『韓中人文學研究』 第24輯, 韓中人文學會, 2008.
- 王金龍, 「崔溥『漂海錄』與中韓文化交流」, 『民族研究』 35, 韓國民族研究院, 2008.
- 李孝淑, 「一六~一七世紀西人における<金時習>認識」, 『朝鮮學報』 206, 朝鮮學會, 2008.

- Lee Jongmook, Hansi and Diglossia in the Chosŏn Period,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1 No.1,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July 2008.
- Kevin O'Rourke, Reflections on Translating Classical Korean Poetry, *Acta Koreana*, Vol.11, No.1, Academia Koreana at Keimyung Univ., 2008.
- Richard Mayer, A Study of Nature and the Way in the Poetry of Kim Si-seup,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1 No.3,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pt. 2008.
- Shin YeonWoo, From Nature to Morality in Emerson and Yi Hwang's Litera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1 No.2,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une 2008.
- Shin Ikcheol, Chosun Literati's Understanding of 'Western Learning'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Ganghobu's Sangbongnok, *Paper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12, British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June 2008.